

한인뉴스

Korean News(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haninnews123@gmail.com

2010·2

통권164



발행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MESSAGING NOW COMES TO LIFE

한글 메뉴 및 SMS



LG GW300

www.lgmobile.com



- QWERTY Keypad • Live Square™
- SMS Chatting • 2.4" Wide Screen

JOIN THE TOUCH GENERATION

한글 메뉴 및 SMS

ARENA



KM900

- S-Class UI • 5MP Camera
- Wi-Fi • Dolby Mobile Sound

한글 메뉴 및 SMS

Renoir



KC910

- 5MP Camera • 3.5G/HSDPA
- 120 fps Video Recording

한글 메뉴 및 SMS

Cookie



KP500

- 3" Full Touch Screen
- Active Flash UI • Accelerometer

0-800-123-7777
(Bebas Pulsa)

LG MOBILE SHOWROOM & SERVICE CENTER

Jakarta : • ITC Roxy Mas, Tel. (021) 63866287 • Mall Taman Angrek, Tel. (021) 5639082 • ITC Cempaka Mas, Tel. (021) 4290978-79 • Mall Senayan City, Tel. (021) 72781540 • Mall Ambassador, Tel. (021) 57939654, 57933590 • Pacific Place Mall, Tel. (021) 57973044-55 • ITC Fatmawati, Tel. (021) 97260046 • Grand Indonesia, Tel. (021) 23580652 • Mall Kelapa Gading 3, Tel. (021) 4507970 **Tangerang** : Supermal Karawang, Tel. (021) 5473437 **Bogor** : Bcitra Square, Tel. (0251) 8400674

LG MOBILE MASTER DEALERS

Jakarta : • Felixindo • Indokom • Dunia Phone • Star Call

LG MOBILE PARTNERS

Jakarta : • Andriani Cell, Telp. (021) 63858857 • SMS Shop, Telp. (021) 63858751 • Pancatama, Telp. (021) 63858780 • H2, Tel. (021) 6304815 • Felixindo, Telp. (021) 42880810 • Sacho Cell, Telp. (021) 5762528 • SG Cell, Telp. (021) 68566626 • Milenia, Telp. (021) 66601515, (021) 66603128 • Dunia Phone, Telp. (021) 63860678 **Cibinong** : Central Communication, Telp. (021) 87920335 **Bekasi** : Dewata, Telp. (021) 8885.5178 **Bogor** : Centralindo, Telp. (0251) 8345456 • Teguh Cellular, Telp. (0251) 8322153

LG MOBILE ORIGINAL ACCESSORIES

Original Room, Tel. (021) 30070333, (021) 9852221, www.originalroom.com

CIC
LG CUSTOMER INFORMATION CENTER
Layanan 365 hari
Jakarta : (021) 727-99777
Surabaya : (031) 549-0777

180° 평면의 안락함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해 드리는 퍼스트 클래스의
Kosmo Sleeper Seat, 이코노미 클래스의 모든 좌석에서도 즐기실 수 있는
주문형 오디오·비디오 시스템, 머큐리 어워드(Mercury Award)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품격 기내식과 웨지우드(Wedgewood)에서 제작한 우아한 식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로 대한항공이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From departure to arrival, Excellence in Satisfaction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자연의 깨끗함만은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PT. INDOBOX UTAMAJAYA Corrugated Carton Box Manufacturer

Jl. Prapatan Kedep. R/T 02/17 Ds. Tlajung Udik Gunung Putri Kab. Bogor-Jawa Barat, Indonesia

Tel : 021-867-1721(Hunting) / Fax : 021-867-1724 / Email : indobox@centrin.net.id

HYUNDAI TRUCK & BUS



KotyBus
KORINDO MOTORS

Berjelajah Seru Bersama Koty !



**HD MIGHTY
TRUCK**

125PS
TURBO - CHARGED INTERCOOLER
EURO II

 **KORINDO MOTORS**

CONTACT : (021) 596-0445



수출입 · 해외투자 전문은행

Core Bank for Global Business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 해외투자, 개도국 경제개발 및 남북협력사업 등 국제거래에 대한 오랜 지원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최상의 금융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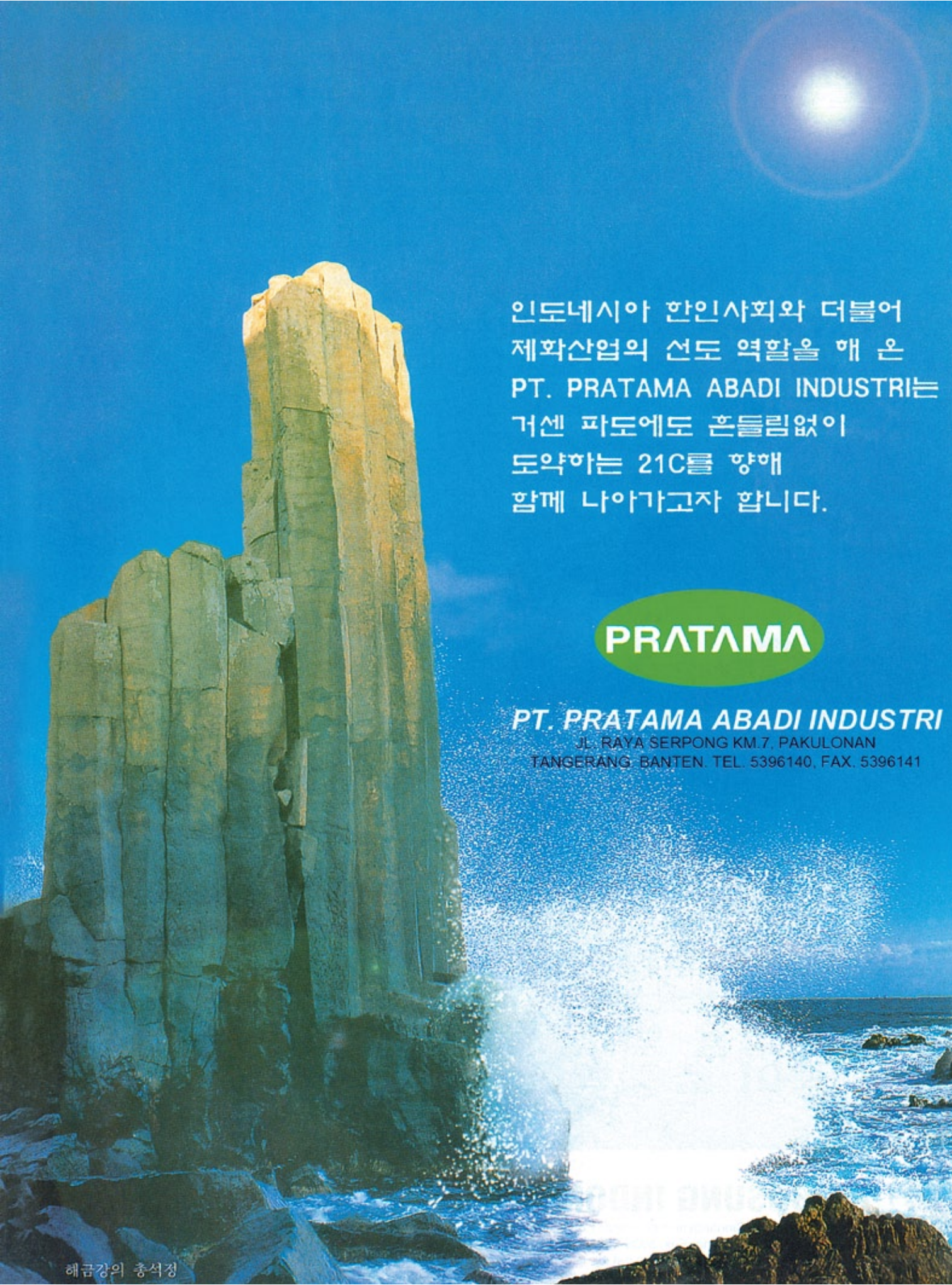
PT. KOEXIM MANDIRI FINANCE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카르타 현지법인으로 리스, 팩토링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해외투자기업 및 교포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PT. KOEXIM MANDIRI FINANCE**
(한국수출입은행 자카르타 현지법인)

Menara Mulia Suite 2007

Jl. Jend. Gatot Subroto Kav. 9 - 11, Jakarta 12930 - Indonesia
Tel. 5257261 (Hunting), Fax : 5257260 www.kmf.co.id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와 더불어
제약산업의 선도 역할을 해 온
PT. PRATAMA ABADI INDUSTRI는
거센 파도에도 흔들림없이
도약하는 21C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PRATAMA

PT. PRATAMA ABADI INDUSTRI

JL. RAYA SERPONG KM.7, PAKULONAN
TANGERANG BANTEN. TEL. 5396140, FAX. 5396141

Travel Services with

Korean Touch!

GO! 패키지 특선

“Garuda항공티켓 + 호텔숙박”

GO! to Korea

Free & Easy Seoul

그랜드 앰버서더, 노보텔(강남,독산), 이비스(명동,강남),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

Health Care Seoul

(Health Care Seoul + 종합건강검진)

이비스 강남 + 건국대학교 명품헬스케어센터



GO! to Indonesia

Jakarta Business Package 65만원 부터

리츠칼튼, 무리아, JW 메리어트, 그랑멜리아, 크라운 플라자, 아스톤 마리나

Family Package 5박7일 75만원 부터

- 고대의 도시로: 족자 2박3일 여행 + 자카르타 친지방문 3박4일
- 축제의 섬으로: 발리 2박3일 여행 + 자카르타 친지방문 3박4일

국제선 · 국내선 항공티켓



해외 여행 패키지

왕복항공권/호텔 및 리조트/공항 및 여행지 이동차량/ 가이드/식사 포함

Air Ticketing

Hotel Reservation

Overseas & Domestic Travel

Tailor-made Corporate Travel



Garuda
Orient Holidays

Operated by BPW SATRIAVI

Tel. (021) 7278-0856/9 Fax. (021) 7278-8375
michelle@garudaholidays.kr / www.garudaholidays.kr
Unit 55 3rd Fl. Dharmawangsa Square Citywalk,
Jl. Darmawangsa VI & XI,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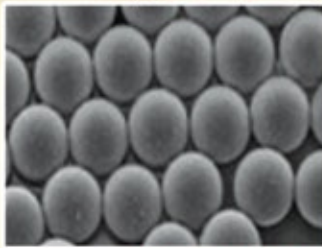
약초형 비만 프로젝트

솔한의원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 리포덤, 지방 분해 약침 도입

리포덤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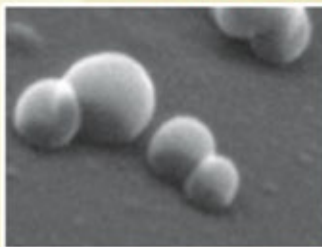
-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시술 가능
- 시술 후 병원 입원이 필요없고 바로 일상 생활 가능

(시술 전 지방 세포)



- 지방 분해 약침은 지방세포의 결합을 깨뜨리며 지방질을 녹여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게 함
- 짧은 시술로 원하는 부위의 바디라인 가능
- 국소부위의 지방축적 해결에 효과적이며 3~4주 후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시술 후 지방 세포)



- 수술적인 요법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적합
- 늘어진 피부의 탄력 개선
- 수술과 마취가 필요없고 흉터가 남지 않음. 딱딱하게 뭉친 셀룰라이트도 해결 가능

New

한달 동안 **비만 패키지 이용 고객 50% 할인 프로모션**
(리포덤+지방 분해 약침+고주파+비만침+체지방 검사)

두툼하고 축 쳐진 팔뚝살, 볼록볼록 옆구리살, 거드랑이 군살에 특히 효과!

솔한의원

Darmawangsa Square 3층(그랜드 위자야 센터 옆)
021-7278-7410 / 8287(예약해 주세요)

장윤정 NOT 콘서트 in Jakarta



행사 수익금 일부는 인니 한글/한국어 나눔사업에 쓰입니다.

특별출연 : MC 홍록기 / Guest : 최영철

일시 2010년 2월 20일 토요일 19:00

장소 JITEC (망가두아 스퀘어)

주최 K-TV

주관 DNA, BEAN R&E

후원

티켓판매처

- 자카르타: 재인도네시아한인회, K-TV, 한강(식당)
- 땅그랑: 국보(식당)
- 플라빠가당: Mr.BBQ(식당)

티켓문의 K-TV (021-525-2922, www.ktvinni.com)



DYNAMIC
KOREA





14



21



30



52

12 한인사회 소식

- 새해, 교민 경제인들 한자리에 모여 올 한해 성공 다짐
- 인니문화연구회 새해 첫 열린강좌 개최
- 새로운 출발을 축하합니다. JKS 초등학교 70명, 고교과정 130명 졸업생 배출
- 대사관-땅그랑 지역 교민 업체, 지속적인 협력 다짐
- 한-인니, 상대국 민원 전용창구 만든다
- 인도네시아 "한국 '청렴도평가제' 배운다"
- 이기주, 윤승철 법인장 귀임
- 한글 사랑을 싣고 장윤정이 온다.
- 2010년 신년회 및 한인회장 이,취임식

24 건강칼럼 상큼한 그린 비타민 Jeruk Nipis

26 시사포커스 19 국가 영웅 구스두르

30 인터뷰 신성철-데일리코리아 대표/연합뉴스 통신원

32 인터뷰 Mr. Sean-W Productions 대표

34 한인뉴스 공모전 가작 수상작

- 상호간의 주역,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 정들어 사는 그곳이 고향
- 작은 것부터 한국의, 한국인의 사랑을 심자

37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안내

41 평통광장

43 행복한 아이 만들기 프로젝트 행복한 아이의 비밀 3

47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녀빠가 되면 쇠고기 먹어요

49 재인니 한인예총 제2기 출범

50 외칭코리아 세종시 수정안,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52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놀라움과 슬픔사이...

59 문화회관 안내

56 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60 유춘강의 긍정칼럼 중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62 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일용직 근로자 활용

65 인도네시아 법률 해설 광물 내수공급 우선 의무

69 MOVIES

70 BOOKS

72 생활정보 가이드

76 2월 공지사항



새해, 교민 경제인들 한자리에 모여 올 한해 성공 다짐

- 대사관, 신년하례 겸 경제간담회 개최

지난 1월 12일 자카르타 리즈칼튼 호텔에서는 김호영 대사 및 교민 각 기업인들이 모여 신년하례 겸 경제간담회가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한 해 동안의 국제금융위기의 어두운 터널을 슬기롭게 이겨낸 직후라서 지난해 이맘때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간담회를 개최한 김호영 대사는 “슬기롭게 지난 한 해의 어려움을 이겨 내 우리 기업과 인도네시아 경제 또한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 기업들의 인니 진출의 호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SBY 제2기 정부 출범 후 여러 복병으로 리더십이 손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중국-아세안 FTA 본격화로 인해 상당부분 무관세가 실현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직간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보고 신중한 자세를 요구했다.

또한 김 대사는 사업장의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어려운 우리 한인들과 그들의 2세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이 십시일반 하는 자세로 여러 가지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밝히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남규 상무관은 최근의 세계경제와 인니 경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발표를 통해 ‘2010년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다 내년부터 회복이 본격화 될 것이다’고 전망했지만 ‘세계금융시장불안 및 국제유가급등’ 등의 불안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송 공사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중국-아세안 FTA 동향에 관한 브리핑으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다.

에너지, 신발, 봉제, 금융, 산림·바이오, 건설, IT 등 교민기업 협의체 대표들도 각 업계 별 동향과 올해 전망 및 계획들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에너지협의회를 대표해서 나온 KIDECO의 이창호 전무는 지난해 영광



신발협의회를 대표해서 김원관 Eagle 대표가 인니신발업계 동향 및 올해 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업법 제정으로 2개의 장관령과 4개의 실행령이 발표되고 현재 그 시행령이 구체화되면서 법적 정비가 명료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구 북반구의 한파와 중국내의 에너지 수요 상승으로 인해 KIDECO 예상 생산량을 초과 했으며 금년에도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조종수 금융협의회장은 금년도 유동성이 호전되고 있어 지난해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금리하향조정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인니문화연구회 첫 열린강좌에 강사로 나와 보로부두르 사원에 대한 참 뜻을 강연하고 있는 능인정사의 성찬 스님

인니문화연구회 새해 첫 열린강좌 개최 - 보로부두르, 그 화려한 부활

한인회인니문화연구회(회장 사공경)에서는 지난 2010년 1월 4일(월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제1회 한인회 인니문화연구회 열린강좌를 개최했다.

한인회문화회관(도서관)에서 열린 이 강좌는 능인정사의 성찬(Asin Sopaka)스님을 초청하여 ‘돌에서 피어나는 향기’라는 주제로 2시간 ‘보로부두르’에 대한 특강으로 이어졌다.

성찬스님은 이날 강좌에서 종교사보다 미술사로 탑의 의미를 조명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강의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이날 강좌에서 성찬스님은 “그들이(부조들이) 보여주는 것을 보십시오”라며 보로부두르에 새겨진 부조들을 입체적으로 감상하는 단순하고도 깊이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소승불교의 가사에 담긴 뜻을 알고 나니 불교 철학의 깊이에 한번 더 고개가 숙여졌다. 50명 정도 참석한 이날 강좌는 박정자 시인의 시(보로부두르, 그 화려한 부활/사공경) 낭송을 시작으로 성찬스님의 강의에 이어 참석자들의 환담으로 이어져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기며 문화의 꽃을 피워나갔다.

또 문화회관을 앤틱 족자 바틱으로 장식하여 ‘오리지널의 힘’이라는 퍼포먼스로 성찬스님의 강의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한인회인니문화연구회에서는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가교가 되고자하는 그들의 활동목표에 맞추어 연중 계속해서 열린강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인도네시아 문화에 관심이 있는 교민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제2회 인니문화연구회 열린 강좌 개최합니다.

- 언덕 위의 부처님 -

강사 : 자림 스님
 주제 : 보로부두르와 불교
 일시 : 3월 중 예정, 교민지를 통해 추후 공고
 장소 : 한인회문화회관(도서관)
 대상 : 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인원 : 70명
 연락처 :
 사공경 0818-708-228 / sagong@hotmail.com
 신유희 0816-190-9976 / plentyhoki@yahoo.co.kr



새로운 출발을 축하합니다.

- JIKS 초등학교 70명, 고교과정 130명 졸업생 배출



세계 최고 명문의 한국국제학교로 평가 받고 있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이하 JIKS)가 지난 1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초등학교과정, 고교과정 학생들의 졸업식을 거행했다.

올해로 개교 34주년이 되는 JIKS는 이날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총 70명(초등학교), 130명(고교과정)의 학생들의 앞길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특히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고등과정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거의 100%에 이르는 등 다시 한번 명문학교로서



의 이름을 떨치게 됐다.

승은호 한인회장 겸 재단이사장, 김호영 대사, 전호신 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에 꼭 필요하고 부모와 스승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조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훌륭한 JIKS 인으로 성장해 나길 바란다”는 진심어린 충고와 덕담을 나누고 재학생 후배들은 축하공연을 통해 정든 교정을 떠나가야 하는 선배들의 아쉬움을 달랬다.





대사관-땅그랑 지역 교민 업체, 지속적인 협력 다짐

- 대사관, 땅그랑 교민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가져 -

대사관은 지난 1월 19일 땅그랑 지역 교민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교민기업들과 공관과의 유대관계 증진 및 기업 활동 애로사항을 나누고 해결을 위한 협력을 모색했다.

땅그랑 지역에 위치한 교민 신발업체인 PT. Pratama Abadi Industri(회장 서영률)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20여 명의 땅그랑 교민기업대표들과 김호영 대사, 오송 공사, 하형소 노무관, 이득수 관세관 등 대사관 직원들이 참여했다.

‘지난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해 내셨다’라는 시작의 말로 김호영 대사는 “올해는 전망이 밝다. 좋은 여건에서 분발해 더 좋은 결과를 바란다”고 전하고 기업 운영시의 문제점이 있을 시 대사관에서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발협회 이경선 부회장은 대사관과의 간담회가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좀더 실리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관계가 형성되길 바랐다.

이어 부가세 환급의 어려움, 전력사용의 문제, 땅그랑 한인회 발족에 관한 기업대표들의 의견들이 개진됐다.

한 교민기업대표의 부가세 환급의 불공정과 어려움의 애로사항에 관해 이득수 관세관은 인니 정부의 고질적인 세수 부족 및 관세당국이 바라보는 한국기업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소득신고 적음)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세대교체 및 5배의 임금인상 등 과거와 달라진 분위기가 형

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업체 대표는 자카르타 인근에 위치하고 있지만 전기료에 관한 혜택이 전혀 없다고 전하며 지역의 전력업체들이 신설업체에 대한 지나친 요금 부과와 단전 등의 방법을 통해 횡포를 부린다고 꼬집었다.

한 신발업체 대표는 신발업체의 세대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들며 본국에 신발학과가 점차 들어오고 있는 이 시점에 유사기관과의 자매결연이나 인턴사원 제도 도입을 통해 새로운 기술도입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국의 대학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대사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랐다.

이어 땅그랑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땅그랑 한인회에 설립을 통해 업체 및 교민간의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체계적인 활동을 할 것임을 밝혔다.

김호영 대사는 사안별로 대사관 각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해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한번 밝혔다.

간담회에 이어 대사관은 PT. Pratama Abadi 및 (주)젠 한국, PT. Zone Star를 차례로 방문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PT. Pratama Abadi Industri

계열사를 포함 20만 여명에 이르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신발제조업체인 PT. Pratama의 서영률 회장은 20년의 사업을 통해 바 이어와의 파트너 관계를 잘 해내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자세로 항상 사업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젠한국

단일 도자 공장으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주)젠한국(회장 김성수)의 도자는 인체에 무해한 완전 무연 유약을 사용해 생산되며 노벨상 시상식 및 세계 60여 곳의 아랍에미리트 공관과 한국의 청와대는 물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공관에도 공급되고 있는 등 세계최고의 퀄리티로 인정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금을 자사 브랜드 파워를 키울 시기로 잡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동남아시아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오리엔탈 미니멀리즘 형식의 도자 생산을 위해 Saint James 외 다른 브랜드도 생산하고 있다.



PT. Zone Star

수영복을 주로 생산하는 PT. Zone Star(사장 김준명)는 연 2천만불의 수출 실적을 이루고 있는 중견 기업이다. 하지만 지역적 특성상 인니 당국과 지역 불량배들의 횡포가 특히 잦아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만 했다. 김 사장은 지역색이 강한 땅그랑의 특성을 고려하여 땅그랑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한-인니, 상대국 민원 전용창구 만든다

- 권익위, 인니옴부즈맨과 MOU 체결



양국 재외국민 권익향상과 고충해결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악수를 하고 있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과 안토니우스 수하타 인니 수석 옴부즈맨.

앞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들의 고충 민원 해결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맨’이 양국 재외국민의 권익 구제 채널 구축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일 오후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인니 옴부즈맨을 방문, 안토니우스 수하타 인니 수석 옴부즈맨과 양국 재외국민 권익향상과 고충해결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두 기관의 협약이 발효되면, 인니 옴부즈맨은 ‘한국인 전용창구’를 개설해 민원을 접수하고 자국 행정기관에 민원을 전달해 처리한 뒤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도 똑 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 위원장은 “양국 교류가 확대되며 재외거주 국민과 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불편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이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증진할 수 있게 돼 상호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토니우스 수석 옴부즈맨도

“이번 MOU를 계기로 양국 국민의 권익증진과 국가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우리 교민이 인니 이민국이나 세무 등 행정기관과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현지 옴부즈맨을 방문해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처리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외곽 보고르에 위치한 의류업체인 대한글로벌을 방문해 우리 봉제업체들의 인니 진출 현황을 듣고 현지 기업환경과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이날 저녁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관저에서 교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맨간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설명했다.

<기사 및 사진 제공: 신성철 테일러코리아 대표>

대한글로벌을 방문한 이재오 위원장과 대한글로벌 임직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자카르타 소재 부패방지위원회(KPK) 청사에서 하르요노 우마르 KPK 위원장 직무대리와 한-인니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印尼 “한국 ‘청렴도평가제’ 배운다”

- 자카르타서 한-인니 반부패정책협의회 열려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가 인도네시아에 수출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이재오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지난 2월 2일 자카르타 소재 부패방지위원회(KPK) 청사에서 하르요노 우마르 KPK 위원장 직무대리와 한-인니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도입한 고위공직자와 인.허가 공무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청렴도 평가제도를 소개했다.

이에 하르요노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반부패 기술지원사업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KPK가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올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신흥국에 큰 의미가 있다”며 “G20 정상회의에서 반부패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것을 의제로 다루도록 공동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양국이 2006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추진한 기술협력 지원사업이 큰 성과를 냈다”며 “올해부터 3



한-인니 반부패협의회를 마치고 기자회견하는 이재오 위원장

년간 제2기 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한국의 반부패 기술지원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에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의 철강, 방송통신과 원전을 소개하고 이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에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 일행은 2박3일간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치고 2일 오후 다음 방문지인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기사 및 사진 제공: 신성철 테일러코리아 대표>



승은호 한인회장이 이기주 LG전자 법인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윤승철 삼성전자 법인장의 송별을 아쉬워 하며 마련한 자리에서 한인회 임원들과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기주, 윤승철 법인장 귀임

지난 1월 이기주 LG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장과 윤승철 삼성전자 법인장이 한국으로 귀임했다.

한인회와 대사관은 두 법인장의 송별의 자리를 마련하고 귀임을 아쉬워했다.

최근 몇 년동안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인도네시아 시장 및 세계 시장에서 사상유래 없는 실적을 올리면서

한국의 위상과 한국인의 자부심을 드높였고 그 중심에는 두 법인장의 숨은 노고가 배어 있었다.

또한 이기주, 윤승철 법인장은 재임중 평소 한인회와 상공회의소 임원으로서 교민사회와 지역사회의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한인사회의 위상은 물론 한국-인니의 경제, 문화 발전과 교류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

한글 사랑을 싣고 장윤정이 온다.

상큼한 미소와 연예계의 팔방미인으로 알려진 가수 장윤정 씨가 2월 20일 밤 자카르타에서 아름다운 공연을 펼치게 된다.

한인회와 대사관 및 코린도, LG전자, KMK, (주)젠한국, 우리은행, 외환은행, PT.세진 등 많은 단체의 후원을 받아

열리게 되는 이번 특별공연은 행사의 수익금 중 일부를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교민 2세의 한글교육과 인도네시아 한글 보급에 쓰이게 돼 단순한 콘서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카르타 망가두아 스퀘어 JITEC 공연장에서 K-TV

주최로 열리게 되는 이번 공연은 지난해 말 Rain(비) 공연에 이은 대형급 공연이라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서서히 불고 있는 한류 가수 공연의 성패를 가름하게 되는 중요한 공연으로도 보여지고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DNA의 고희석 대표는 좋아하는 연령대가 넓고 특히 한글사랑에 대한 애정이 깊어 장윤정 씨를 섭외하게 됐다고 밝히고 특히 이번 공연은 관중들과 적극적인 호흡을 유도해 지금껏 보지 못했던 쌍방향의 멋진 공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고 대표는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의 한글 채택으로 인해 한국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아미를 땀땀 바우바우시장과의 상견례와 바우바우시 전통공연단의 멋진 공연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콘서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지 10쪽 참조>





2010년 신년회 및 한인회장 이·취임식

그리고

지난해를 돌아보며 아직 못다한 이야기...

어드 몇 반등한인회 출범이 90년대 중반 발족된 반등한인회는 청소년기를 거쳐 이제 성인의 모습으로 성숙되 가고 있다. 작게 소규모 모임에서 출발한 반등한인회는 2기, 3기, 4기를 거쳐 부족하지만 체계적인 조직의 모습으로 반등 한인사회 대표 대변기관으로 반등 한인회 집행부는 묵묵히 행동으로 교민화합과 타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교민을 위해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민들로 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한국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반등지역 소개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섬에 위치한 반등은 인도네시아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이다. 이 곳은 높은 화산군(火山群)으로 둘러싸인 반등 분지의 중앙 고원지대로 연평균 기온이 22.3℃(자카르타는 32℃)에 불과해 20c초부터 식민 통치(1602-1942)국가인 네덜란드인에 의해 피서지, 휴양지로 개발되는 등 아름다운 근대 도시로 발전했다.

반등공과대학(ITB)과 자바 원인 (猿人 : 피테칸트로푸스에 렉투스)의 복원상이 있는 지질조사소, 파스퇴르 전염병 연구소, 반등공과 대학, 파자자란대학 등 저명한 교육·연구 시설이 있고, 남부 지구는 변화한 상업지구이다.

반등은 특히 1955년 제3세계 국가들인 제1차 아시아.

아프리카국가의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비동맹 운동의 본산으로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곳이다.

한인수 약 1000여명 정도 거주하며 대부분 섬유 봉제업에 종사하고 있다. 중국의 섬유업체를 포함한 해외 투자단은 원가절감차원으로 생산기지를 서부자와 반등으로 이전을 적극검토하여 반등을 방문 아흐맛 헤리아완 주지사와 상담을 하였다. 한국의 해외이전을 검토하는 업체는 전략적 위치에 있는 반등지역을 고려해 볼만 하다. 그러나 아픔도 있는 곳이다. 전라남도 사회복지협회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등 외곽지역 빵아레안지역 10년간 사업지원 이기간 동안 구호물자 제공과 자원봉사 파견 활동에 주력하면서 반등사회 복지대학과 사회 복지협회와 MOU체결하고 선진복지 시스템을 전달한다고 한다.

(2) 2010년 신년회 및 회장 이·취임식 열려

다사다난했던 2009년을 마치고 반등한인회(회장 김재용 PT.SARANA BINTANG ABADITEX대표)에서는 신년회 및 이·취임식이 그랜드 아퀼라 호텔에서 1월 16일 열렸다.

월드 옥타 최동목 부회장, 반등지역 목사님등 반등지역 어른, 어린이 포함 200여명의 반등 교민들이 오랜만에 한자리를 하였다.



오후 6시에 시작하여 약10까지 이어진 행사는 김재용 신임회장과 전임회장의 취임사와 윌트옥타 최동목 부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반동교민들은 호텔과 여성부에서 준비한 음식으로 토요일 저녁식사를 하면서 초, 중,고 학생들의 악기연주와 춤, 노래 공연을 관람 하였다. 4대 한인회 집행부 감사패 전달과 중간 중간 경품 추첨등이 있었다.

5대 신임 김재용 회장은 2대 반동한인회 총무간사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한인회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인테리어 관련 섬유 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기독교인으로 반동 생활 20여년 되는 반동 토박이다.

김재용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 5대 반동한인회 중점사업으로 교민화합, 한류문화 형성 그리고 다문화가정 한국문화알리기로 정해 추진한다고 하며, 반동한인회가 반동교민들의 대표 대변기관으로 교민의견 청취, 고충처리 및 민원해결을 위하고 교민 화합과 발전을 할 수 있게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동민 어린이의 오키리네 연주를 시작으로 의상까지 똑같이 준비한 반동국제학교 학생들의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공연. 간디국제학교 학생들의 사방사방. 반동인근 가룟에서 사업을 하시는 구본관님의 색소폰 연주... 임소정 주재원 천혜령 어린이들의 크라리넷 연주, 바이올린과 피아노 연주에 맞춘 이선영님의 소프라노, 반동의 명물 유영숙 여사의 각설히 타령.공연이 있었다.

지역적으로 한국의 문화생활을 접하기 힘든 교민들에게 고국의 향수를 달래고 초대받은 인니 공무원과 일반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는 한국문화와 예술을 직접 느끼게 한 문화 예술 공연이었다.

이날 엄정호 4대 전임 한인회장은 “여러가지 얼룩진 반동교민 사회의 모습들을 다 내려 놓고 밝아오는 새해를 시작하자”며 “세계경제가 회복이 될 것으로 보는 낙관적인 전망 가운데 고국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긍정적인 소식들은 해외 동포 사회에 커다란 위상과 힘이 되고 있다 “하였다. 그리고 “가슴 아팠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5대 집행부 노력에 물심양면으로 후원 할 것을 약속” 하며 취임사를 마무리 하였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경건하게 때로는 신명나고 즐겁게 이어졌다.

(3)반등한인회 못다한 이야기

1. 열재한 5대 수석부회장 김호영 대사 표창장 수여

반등한인회 열재한 수석부회장이 교민화합과 봉사활동으로 모범 교민상을 김호영 대사로 부터 받았다.

2.한인회장 선거

반등 한인회 선거일 당첨의 순간 하서호 선거위원장, 임정호 4대 전임 회장, 김재용 5대 신임회장.



3. 제 4대 전 임정호 한인회장 섬유헌회 표창

2009년 한국 섬유의 날을 기념하여 해외에서 수출에 주력한 모범 사업체의 대표로 추천되어 한국섬유연합회(회장 오희찬)에서 임정호 전 4대 반등한인회장(PTING 대표) 특별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표창장과 함께 천기태 부사장 임정호 사장



4. 반등 한인회 박영희 여성회장 및 한인회 관계자 고아원 방문

제 4대 집행부 처음으로 여성부가 발족되면서 매월 1회 정기방문으로 재정지원과 고아원생들 두발정리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입학 앞둔 Fani Oktaviani이라는 여학생의 사정을 고아원 원장으로 부터 들은 임정호 회장은 개인적으로 입학금 학비전액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5.반등 한인회 문화 회관 개관

반등 교민들의 회원회비 그리고 4대 임정호 한인회장 개인사재 5천만루피아 출연으로 반등교민들의 숙원사업인 한글학교 한인회 사무실을 겸함 문화 회관 건립과 반등교민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6.반등 한인회 재단(Yayasan) 등록



상큼한 그린 비타민

Jeruk Nipis

처음에는 덜 익은 레몬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파랗게 잘 영근 이 과일의 향을 맡아보면 인공적인 향으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신선하면서도 상큼한 향을 가졌습니다. 이름하여 Jeruk Nipis.

한국 사람들은 Jeruk nipis를 소주 먹을 때 즙을 짜서 타먹거나 아이스티에 조각내서 넣어 먹거나 생선에 자주 뿌려먹습니다. 또한 스파를 할 때 보면 욕조 안에 즈룩 니피스 조각들이 둥둥 떠 있는걸 보아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일상생활 구석구석에서 흔히 보이는 과일이지만 막상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과연 이걸 통째로 먹을 수 있을지.. 뛰어난 효능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낯설은 과일, Jeruk Nipi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Jeruk nipis의 학명은 Citrus aurantifolia입니다. 식물학적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쌍떡잎식물 쥐손이풀목 운향과의 상록관목 귤속에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귤이나 레몬, 유자, 오렌지는 같은 운향과의 상록 소교목의 열매로 Jeruk nipis도 이들의 친척뻘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Jeruk nipis의 원산지는 인도 북동부에서 미얀마 북부와 말레이시아가 원산지로 추위에 약하므로 아열대·열대 지방에서 널리 재배합니다. 15세기 경에는

유럽 지중해 연안지역에서 재배되다가 컬럼버스의 대륙발견으로 아메리카에 전해졌고 캘리포니아가 세계의 대 생산지로 발전하였습니다. Jeruk nipis는 영어로 하면 라임으로 즈룩 니피스 보다는 우리에게서 라임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즈룩 니피스의 한의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성은 신고온(辛 苦 溫)하고 미는 산감(酸 甘)하며, 귀경으로는 수태음폐경, 족양명위경, 수양명대장경이 됩니다. 즈룩 니피스는 운향과에 속하는데 운향과에 속하는 한약재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귤껍질, 즉 한방명으로는 진피(陳皮)라고 부릅니다. 진피는 이기지제로 멍쳐진 기를 풀어주고, 기가 역상하는 것을 하강시키며, 따뜻한 성품으로 소화기를 보하고, 방향성이 있어 기분도 상쾌하게 합니다. 특히 비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복부창만, 트림, 구토, 메스꺼움, 소화불량, 헛배가 부르고 나른한 증상, 대변이 묽은 증상을 치료합니다. 이뇨작용이 있어 부종을 없애고 구역을 진정시키며, 거담작용이 있습니다.

즈룩 니피스의 생김새를 살펴보면 광택을 띄는 초록색의 열매로 넓은 타원 모양입니다. 지름은 3~4cm 이고 작은 갈색점들이 산발적으로 찍혀있으나 자세히 안보면 잘 안보입니다. 열매는 익으면 껍질이 얇아지고

초록빛을 띤 노란 색이 됩니다.

열매의 과육은 하얀색으로 알갱이들이 모여 있으며, 그 안에는 5,6개 정도의 씨가 있습니다. 누르면 연하고 말랑말랑하지만 약간의 탄력이 있습니다. 즙이 많고 맛은 신맛이 나며 레몬보다 더 새콤하고 달콤합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 먹기에는 굉장히 시어서 보통 물에 타 먹거나 다른 요리에 첨가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효능을 살펴보면 소화기 강장제로써 즙록 니피스의 특유의 향으로 식욕을 증진시키고 소화기능을 활발하게 합니다. 특히 감기, 목아픔, 몸살 등에 좋으며, 피부수렴작용과 이뇨작용으로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해 주고 밝은 피부로 가꿔줍니다. 또한 특유의 상쾌한 향 때문에 머리를 맑게 하고 무기력증, 항우울증에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가 아주 많아서 영국 선원들은 피혈병을 예방하기 위해 먹었으며, 목이 아프고 후두염이 있을때 즙록 니피스 주스를 마시거나 양치질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1주일에 2~3번씩 자몽과 레몬, 라임 주스를 같은 양으로 혼합하여 만든 물로 양치질을 하면 치아가 하얗게 유지기도 합니다.

Jeruk nipis의 성분을 살펴보면 100g당 칼로리가 51kcal, 단백질 0.9g, 지방 0.2g, 탄수화물 11.4g, 미네랄 0.5g, 칼슘 33mg, 인 23mg, 철 0.4mg, 비타민 C 49mg 입니다. 특히 비타민 C가 함유량이 높고 구연산,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 있어 노화방지도 좋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피부미용이나 치료제로 이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즉 피부가 강한 태양광선에 의해 붉게 타거나 상처가 났을 때, 또 피부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벌레 물린데 이 Jeruk Nipis 를 바르고 있습니다.

Jeruk Nipis는 신장결석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이것을 짜 넣고 저녁식사 후에 마시라고 하는데 밤이 되면 신장에 구연산의 함량이 상당히 저하되게 됩니다. 이를 이 Jeruk nipis로 보충해 주면 신장 결석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물이 특히 석회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신장결석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이 Jeruk nipis가 그 예방을 해줄 수 있다니 다행한 일입니다. 또 이 즙을 강한 햇빛에 그을리고 탄 피부에 발라주게 되면 거칠고 검게 빛나던 피부도 희고 부드럽게 보호하고 치료해 주니 더없이 귀중한 과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자카르타 한국 식당에 가서 소주를 시키면 즙록 니피스가 같이 나오고, 즙록 니피스를 소주잔에 조금씩 짜 넣어 마시는 습관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나 기름 끼가 많은 음식 혹은 생선류, 과일 등의 음식에 소독이나 비린내를 없애고 향을 첨가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을 섭취할 때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오렌지, 레몬, 라임 조각을 뿌려서 섭취하면 좋습니다. 또한 열대 과일로 만든 샐러드에 즙록 니피스 즙을 뿌려주면 그 맛을 배가시키고, 껍질을 채 썰어 설탕에 버무려 뿌려내면 예쁜 데코레이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낮의 더위로 입맛을 잃었다면, 혹은 새콤한 무언가가 미각에 신선한 자극을 주길 원한다면 간단하게 즙록 니피스를 이용한 요구르트나 샐러드를 만들어볼 것을 권해봅니다. 워라 정의 내릴 수 없는 상큼, 시큼, 달콤한 맛의 유혹은 식탁 위에 그린빛 비타민을 선사할 것입니다.

국가 영웅 구스 두르

글 김문환

2009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던 세모(歲暮)에 연거푸 부음이 들려 온다. 거의 눈을 감은 채 고개를 가우뚱 기울이며 “Gitu aja kok repot?(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느냐?)”라는 직설적 유머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 잡던 구스 두르(Gus Dur) 전 대통령이 12월 30일 오후에 신장, 심장, 당뇨 등의 합병증으로 69세를 일기로 영원히 눈을 감았는가 하면, 극도의 이념분쟁으로 민생경제는 뒷전으로 밀려 일인당 국민소득은 60불에 불과해 먹고 살기가 가장 힘들었던 수카르노 대통령 말기 농원부장관으로(Menteri Perkebunan) 입각하여 역대 5명의 대통령에게 자문역을 수행하였던 프란스 세다(Frans Seda)가 구스 두르가 임종한 시간으로부터 만나질이 채 지나지 않은 12월 31일 새벽에 노환으로 별세하였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구스 두르가 종교명문가의 직계혈통을 이어받으며 이슬람 종교계의 대부로 성장하였다면 프란스 세다는 동부 오지의 군도인 플로레스(Flores)에서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출생하여 경제각료와 비 이슬람권을 상징하는 종교지도자로 입신한 선각자였다. 그가 네덜란드 유학시절 한국인 출신 폴 조(Paul Cho; 한국명, 장순일)와 함께 재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유학생연합을 결성하였고 귀국 후엔 아프마자야 대학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자신은 경제대학장, 폴 조는 공과대학장을 맡아 이 대학을 단기간에 명문대학으로 발전시킨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두 사람은 14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사회의 약자 편에서 강자들의 횡포를 규탄하고 비판하는 투사로서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으며 양자간에는 무언의 텔레파시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2억4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인도네시아 인구의 86%를 점하는 이슬람 교도 중에서 약 4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흐드라툴 울라마(Nahdlatul Ulama; 성직자의 각성)라는 수니파 이슬람 종교단체는 웬만한 국가의 인구수를 상회하며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항상 집권자의 배려와 관심을 끌어 왔었다. 이 종교단체는 14년 전에 기 창설되었던 무하마디야(Muhammadiyah)에 대항하기 위해 1926년 이슬람 성직자인 와합 하스불라(Wahab Chasbullah)와 하심 아샤리(Hasjim As'jari)에 의해 동부자와 줌방(Jombang)에서 창설되어 하심 아샤리가 초대 총재를 맡았으며 그의 장남 와히트 하심(Wahid Hasjim)에 의해 그 수장 자리가 승계되었고 독립전쟁이 종결된 직후인 1949년 말 와히트 하심은 수카르노 대통령에 의해 초대 종교성장관으로 임명된다. 와히트 하심은 4남 2녀를 두었는데 줌방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구스 두르도 이때 부친을 따라 자카르타에 정착하게 된다. 구스 두르는 유년시절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사사를 받아 5세가 되자 코란을 통독할 정도로 영특하였다. 구스 두르 나이 13세이던 1953년 반동 근교를 달리던 와히트 하심의 승용차가 트럭과 충돌하여 앞 좌석에 타고 있던 13세의 소년 구스 두르는 무사하였으나 뒷 좌석에 자리잡고 있던 부친 와히트 하심은 사망하였다. 19세가 되던 1959년 구스 두르는 정신적 고향인 줌방으로 낙향하여 성직생활에 헌신하게 되며, 1963년 종교성 장학금을 수혜받아 카이로에 있는 알 아자르(Al Azar)대학에 입학하였으나 본과에 입문하기 전 거쳐야 하는 외국인에 대한 어학연수 과정을 밟으면서 여가시간을 활용해 축구와 영화 감상에 심취하게 된다.

젊은 시절의 구스 두르. 그는 청년 시절 이집트, 이라크, 유럽, 미국 등지의 문물을 섭렵하고 귀국하여 저널리스트로 명성을 날리며 축구, 음악 등에도 남다른 기호를 가진 다재다능한 수재였다.

다음해인 1964년에 정식으로 학부과정에 편입되면서 주 이집트 대사관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되어 1965년 9.30 쿠데타가 발발하자 본국의 군부로부터 유학생에 대한 사상 성향조사 보고를 하도록 지시 받는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구스 두르는 이를 거부하고 바그다드 대학의 장학금을 다시 취득하여 1966년 이라크로 건너가 학부과정을 마치게 된다.

구스 두르의 본명은 압두르라흐만 와히트(Abdurrahman Wahid)이지만 통상 구스 두르로 약칭된다. ‘구스(Gus)’는 이슬람 성직자(Kyai)의 자제분에 대한 애칭이며 ‘두르(Dur)’는 이름자 ‘압두르라흐만’에서 따온 약자이다. 그는 5개 국어에 능통하였으며 유력일간지인 콤포스(Kompas)와 주간지인 템포(Tempo)지에 고정 칼럼을 가질 정도로 저널리스트로 명성을 날렸으며 때로는 축구 평론가로, 또는 차이코프스키 등 클래식 음악에 일가견을 가질 정도로 다재다능하였다. 이때쯤 되자 그가 태어난 요람인 NU쪽에서 그를 그대로 놓아둘 리가 없었다. 부친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요절하자 그는 어린 시절부터 외할아버지인 비스리 산수리(Bisri Syansuri)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비스리 할아버지는 인도네시아에서 여성교육을 정식과목으로 편성한 최초의 이슬람 교육자였다. NU의 대를 잇기 위한 목적으로 외할아버지는 구스 두르에게 NU에 들어올 것을 권고하였으나 번번히 거절하다 세 번 째 부름에는 더 이상 거역하지 못하고 1982년 NU의 자문위원이 된다. 이때 그는 NU에서 파생된 정치정당인 PPP당 총선 캠페인에 참여하다 당국에 체포되어 구금되기도 하였으나 당시의 정치관도를 거시적으로 내다보고 있던 베니 무르다니 장군의 도움으로



석방된다.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석방된 구스 두르는 1983년 PPP당과 결별하고 1984년 무려 28년 동안 NU를 이끌어 온 남부 깔라만판 주 사투이(Satui) 출신인 이드함 할릿(Idham Chalid)의 후임으로 NU총재에 피선되어 1999년까지 3회에 걸쳐 연임하게 된다. 그가 NU의 수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도 꺾일 줄 모르는 그의 반정부 비판정신으로 인해 권부는 구스 두르를 사정권 안에 넣고 기회를 노리게 된다. 1993년 자고라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구스 두르의 부인 신따(Shinta Nuriyah)는 중상을 입게 되고 결국 하체가 마비되는 불구가 된다. 이 차량에는 애초에 구스 두르가 함께 동승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수하르토 정권의 운명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자카르타를 비롯한 대도시가 운동 개혁운동의 시위로 뒤덮혀 가고 있을 무렵인 1998년 초 구스 두르는 뇌졸중으로 잠시 병상에 눕게 된다.

병원 창문 너머로 개혁을 외치는 대학생들의 함성이 컷전을 때리는 그 시간에 누구보다 시위대의 선봉에서서 이들을 지도하여야 할 구스 두르는 이 순간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그러나 완전치는 못하지만 병상에서 일어선 구스 두르는 뒤늦게나마 개혁의 대열에 동참하며 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나름대로의 위치를 정립하여 나간다. 1998년 5월 21일 결국 수하르토 정권이 종말을 고하고 부통령인 하비비가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으나 최고의결기관인 국민협의회(MPR)의 신임에 실패한 하비비도 1년 반 만에 하야하게 되자 협의회는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순리대로라면 총선에 의해 최대 다수당이 된 민주투쟁단(PDIP) 후보인 메가와띠의 당선이 가장 유력하였지만 이슬람 관습상 여성 대통령의 출현을 터부시하였던 이슬람계는 필사적으로 메가와띠의 당선을 막기 위해 당시 개혁운동의 건인차였던 아미엔 라이스(Amien Rais)가 주축이 되어 ‘중립축(Poros Tengah)’이라는 정치연합을 급조하여 결국 373표 대 313표로 열외의 인물이었던 구스 두르가 메가와띠를 물리치고 어부지리로 대통령으로 등극하며 차점자인 메가와띠가 부통령으로 취임한다.

제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구스 두르는 수하르토 시절의 군부 무단정치의 관행을 불식시키는데 주력하며 국민이 주인인 시민사회(Masyarakat Madani)를 지향하였으며 중국을 국민 방문하여 장쩌민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화교에 대한 차별철폐를 약속하고 곧장 이를 시행에 옮기게 된다. 즉, 2001년 1월 화교들의 최대 명절인 구정(임렉, Imrek)을 선택공휴일로 제정하고 공공장소에서 금지되었던 중국어 사용과 중국어 간행물 발행을 허용하였으며 바롱사이(Barongsai; 용무), 리옹(Liong; 사자무)과 같은 중국의 전통공연을 허가하는 결단을

내렸으며 이러한 결단은 구스 두르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내리기 힘든 결정이었다. 이때부터 1965년 9.30 쿠데타 이후 운신의 폭이 극도로 제한되었던 화교사회는 기지개를 펴며 오늘날처럼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구스 두르는 2년이 채 안 되는 재임기간 중 무려 30개국을 외유하며 순방외교에 치중하였으며 월체어에 의지하는 부인과 함께 둘째 딸 예니(Yenny)의 부축을 받으며 구스 두르가 항공기에 오르는 날이면 이들을 맞이하는 국가의 의전담당관들은 곤욕을 치르게 된다. 이와 같은 구스 두르의 돋보이는 치적 뒤엔 어두운



1999년 국민협의회(MPR)의장인 아미엔 라이스(Amien Rais)의 주도로 결성된 범 이슬람권 연합세력인 소위 ‘중심축(Poros Tengah)’은 여성 대통령의 출현을 결사 저지하기 위해 가장 유력시되었던 메가와띠에 대항하여 구스 두르를 옹립하는 로비를 벌였다. 사진은 아미엔 라이스와 구스 두르가 무언가 숙의하고 있다.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었다. 국경기업체(BUMN) 장관이던 락사마나 수까르디(Laksamana Sukardi)와 상공부장관이던 유슈 깔라(Yusuf Kalla)를 부패혐의로 전격적으로 해임하면서 그들의 출신당인 PDIP당과 골까르당과 등지게 되며 그의 정국운영은 격한 풍랑을 맞기 시작한다. 소위 4백만 불의 정부기관 자금을 유용한 불록게이트(Buloggate)와 아쨌(Aceh)지역 분쟁 해결에 보태 쓰라고 브르네이 국왕이 기부한 2백만 불을 유용한 브르네이게이트(Bruneigate)를 자초하여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자 강경대응책으로 응수하며 국회해산을 위한 전초전으로 당시 정치안보조정장관이던 SBY에게 비상사태 선포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역한 SBY마저 해임하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결국 군부마저 구스 두르 대통령의 국회해산에 반기를 들자 국민협의회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2001년 7월 23일 임시 총회를 열어 구스 두르를 탄핵 처리하고 그 후임으로 메가와띠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한편 공석이 된 부통령직에는 PPP당 당수이던 합자 하스(Hamzah Haz)가 당선된다. 이 때 탄핵안이 통과한 지 이틀이 지나도록 대통령궁 내에 버티고 있던 구스 두르가 심야 시간에 반바지 차림의 맨발에 산달만 신고 예니의 부축을 받아가며 대통령궁을 떠나는 장면은 서민 대통령으로서의 제스처라고 좋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의전상의 큰 결례라는 혹평자들도 있었다. 구스 두르는 며칠 후 건강검진 차 곧장 미국의 저명한 대학병원인 존스 홉킨스 대학으로 향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하야에 대한 후일담으로 아민 라이스와 메가와띠의 공모와 SBY와 공조하여 비상사태 선포에 반기를 들었던 비만또로(Bimantoro) 경찰청장과 위도도(Widodo) 국군사령관의 항명 때문에 자신이 낙마하였다고 주장하며 탄핵 전초전인 국회 특별조사위(Pansus) 위원장인 박띠아르 합샤(Bachtiar Chamsyah)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할 회의를 고의적으로 문을 10센티 정도 열어 기자들에게 세어나가도록 하여 여론을 호도하였다고 술회하고 있다. 이 당시 갑작스런 구스 두르의 하야로 인해 그 동안 구스 두르의 측근에 줄을 대어 성사 직전의 프로젝트가 일시에 취소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은 한국인 투자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구스 두르는 이제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그는 항상 종교적인 이해와 인종문제에 대한 자제를 호소하였고 또 이를 실천한 통 큰 정치인이었다. 아울러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며 소수계층을 보호하는 수비수 역할을 자임하였으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어디서나 강한 목소리를 내었고 내면적이고 정제된 이슬람의 정체성을 주창하는 국제전도사의 역정을 걸어 나갔다. 수하르도

정권의 압제하에서도 권력층에 대항하는 신념과 금기시 되었던 이스라엘과의 교류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는 진정 용기 있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덕목이었다. 구스 두르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구스 두르를 국가영웅으로 추서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때는 민주화 투쟁 동지로, 또는 정적으로 동고동락하였던 아미엔 라이스(Amien Rais)의 언급대로 그가 결점이 없는 완전한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그의 치적이 그의 결점을 뛰어 넘어 국민들의 추앙을 받을만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4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NU 창설자의 직계 혈통이며 NU의 영향력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없음을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구스 두르가 ‘국가영웅(Hero Nasional)’으로 추대될 움직임이 보이자 차체에 경제건설에 큰 공적을 갖고 있는 수하르도 전대통령도 이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나오는가 하면, 구스 두르 보다 12시간 늦게 타계한 프란스 세다 전 경제장관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 국가에 국민들이 추앙하는 국가영웅이 많이 배출된다는 사실은 분명 경사스런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옥석을 가리지 못하고 이를 남발한다면 진정한 영웅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연말 연시가 되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 한인사회에도 정부 포상이나 한인사회 내부적으로 열리는 표창행사가 간간이 이루어 진다.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국가 이익에 헌신한 많은 포상, 표창자가 배출되어야 함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구스 두르 처럼 인도네시아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거나 수긍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선출되듯이 우리 한인사회도 이와 같이 대다수의 교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는 포상 수혜자가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현지 정보 갈증 확실히 적신다

신성철

데일리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통신원

인터뷰: 김영민 편집위원

신성철 대표는 통신원, 기자라는 칭호를 듣는 게 아직 부끄럽다고 한다. 그는 흔히 말하듯 정통 기자 출신은 아니다. 신 대표는 한국외대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를 전공하고 21년 전 인도네시아에 첫 발을 디고 10여 년간 한인 제조업 회사에서 근무했다. 그 후 돌연 회사를 나와 잠시 휴식기를 거친 후 부쩍 늘고 있는 한인사회에 인도네시아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목적으로 ‘스피드뉴스’를 창간했다.

주로 현지 일간신문과 외신들을 번역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지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하기 시작하자 교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현지와의 높은 정보의 벽이 하나 둘씩 무너져 가기 시작하면서 가십거리 위주의 이야기들은 좀더 진지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한 감초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자카르타는 물론 반둥, 수라바야, 족자, 깔리만탄 등 인니 전역에 배달돼 많은 한국기업경영자들이 애독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관련 기사들이 한국의 포털사이트에 부쩍 늘어났다.

현지 매체들에서 크게 보도되고 있는 이곳 관련 기사들이 한국어로 어김없이 기사화 되기 시작했고 교민들은 인터넷을 열면 의례 ‘인도네시아’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교민과 현지의 사이뿐만 아니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거리가 확실히 좁혀져 갔다.

장본인은 1999년 스피드뉴스(현 데일리코리아)을 창간하고 또한 3년 전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통신원으로서 인도네시아 관련 뉴스를 한국은 물론 전세계 동포에게 알리고 있는 신성철 대표다.

신 대표는 “10년 동안 스피드뉴스를 발행하면서 일방적으로 뉴스를 전달했으나 앞으로는 독자들이 참여하는 매체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다양한 교민 소식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교민과 교민기업 및 기타 단체의 제보와 기고도 받아 게재할 계획이다.”며 새로운 10년의 상을 그려 보였다. 또한 그는 새로운 10년을 위해 올해부터 신문 명칭을 데일리코리아로 변경하고 일방적인 뉴스 전달방식에서 벗어나 번역기사, 취재기사, 교민기고 등 교민들의 다양한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양방향 전달 방식을 채택했다.



신 대표는 연합뉴스 통신원으로 활동 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 독자들의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균형 잡힌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외신은 자국 중심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지 매체에서 보는 시각과 상이할 때가 많다. 인도네시아에 관해서도 재난이나 사건, 사고 위주의 사실들을 다루다 보니 현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이 우리가 보는 시각과 조금 다르게 보여지고 있는 점이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지의 아름다운 이야기, 현지문화의 다양성 등에 관해 기사를 다뤄 왜곡된 시각들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너무 평범한 질문? 하지만 기자의 특별한 시각을 기대하면서 ‘기자의 눈으로 본 한인사회’에 대한 대답을 제안했다.

신 대표는 “이곳 한인사회는 타 한인사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업을 위해 모인 한인사회로서 순박하고 그 속에 위계질서가 있고 또한 애국심이 강하다. 또한 지역사회와 한인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을 베풀어 나가고 있는 점은 우리 한인사회의 미래를 아름답게 그려갈 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40년 역

사의 한인사회가 급 발전해 나가면서 한인사회 내부 신·구세대 간의 갈등과 소통의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인사회 내부에서 좀 더 평등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현지에 대한 경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문화, 사회, 예술 등 다양한 사고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현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그 간 느껴온 한인사회의 느낌을 허심탄회하게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거나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생각으로 현지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잡힌 뉴스를 전달하기 위한 마음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는 신 대표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자신도 많이 배우고 동시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시각을 많이 교정하고 있다며 너스레 웃음을 짓는다.

한 업종 10년 경력이 되어야만 그 업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한다. 짧은 인터뷰였지만 이제 10년을 넘긴 데일리코리아가 현지 정보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한인사회에 보다 활력을 주고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Rain 콘서트 後_후

또 다른 톱 한류가 온다!

인터뷰: 김영민 편집위원

지난해 12월 3일 향간에 떠도는 모든 루머를 잠재우고 세계적인 가수이자 배우인 비(Rain)가 그 화려한 퍼포먼스를 자카르타에서 선보였다.

자카르타에 위치한 망가두아스퀘어 JITEC 홀에서 펼쳐진 2시간을 넘긴 퍼포먼스에 3500여명의 관중들은 시종 열광했고 인도네시아에선 유래가 없었던 한국 특급(?) 가수의 공연은 각종 매체에 ‘최고의 공연’이라는 찬사를 써 넣으며 끝이 났다.

특히 자카르타포스트, 트랜스 TV, 트랜스 7 등 유명매체는 비 콘서트의 퍼포먼스, 기획, 시설과 관객의 반응에 최고의 점수를 부여하고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최고의 콘서트 중 하나라는 평을 경쟁적으로 기사화했다.

“사실 상업적으로 성공하진 못했다. 하지만 공연 후 한국의 연예 기획사들로부터 높은 평판과 신뢰를 부여 받았음에는 틀림없다.” 비 공연을 기획한 현지 기획사(W Productions) 션(Sean) 대표는 전했다.

1975년 자카르타에서 태어나 싱가포르와 호주에서 유학, 2000년 귀국 후 금융권에 종사하다 7년 전부터 연예 기획사 일을 시작한 션 대표는 2007년 6월부터 W Productions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연예기획사업에 뛰어 들었다.

W Productions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
왼쪽부터 마티누스, 수순다리, 션 대표.

션 대표는 W Productions를 설립하고 약 2년 동안 10여명의 중국, 대만, 홍콩의 유명 가수 및 배우들과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공연을 가졌다. Vicky Zhao 라는 유명 중국 가수 콘서트를 시작으로 이름만 들어도 소녀 팬들을 가슴 뛰게 했던 대만의 배우 겸 가수인 F4의 멤버 Jerry Yan, 홍콩의 David Tao & Sch.E 의 성공적인 공연 등은 모두 그의 손에 의해 이뤄졌다.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화교를 겨냥한 중국, 대만, 홍콩의 연예인들이어서 후원을 받거나 기본 수량의 티켓 판매가 가능했고 여러 차례의 콘서트를 기획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비 공연에 대한 그의 경험은 그를 보다 성숙의 길로 들게 했다. 공연 자체로는 대 성공이었지만 스폰서 모집에 실패하면서 티켓 가격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점, 공연 날짜 선정의 문제, 한인사회 및 한인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션 대표는 솔직한 느낌을 털어냈다.





Mr. 션

Mr. Sean Sudwikatmono
(W Productons 대표)

“인도네시아 최고의 후원업체는 자룸이나 삼뿌르나 등 담배회사이다. 하지만 담배회사들은 비(Rain)가 아이돌 가수로 간주되어 그의 이미지와 맞지 않고 또한 대형 가수에 걸맞은 초대형급 개런티 계약이 되어 있어서 타 후원업체를 찾는데 무척 힘들었다. 촉박한 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스폰서를 모집하는데 실패했고 급기야는 티켓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하지만 공연 후 어느 팬으로 부터도 공연 자체에 대한 불평의 소리가 없었다는 점이 또 다른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한다.

비 공연 후 차기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 션 대표는 기획사의 Facebook이나 Twitter를 통한 온라인 상에서 한국 연예인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다. 각각 약 4000명이 넘는 회원이 등록된 이곳을 통해 팬들의 요구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팬들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 한국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주를 이룬다고 한다.

션 대표는 인도네시아에서의 한류의 확산을 확신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에서의 한류 지수를 90% 와 70%로 본다면 인도네시아는 아직 약 20% 정도라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에 한류는 현재 존재하고 있다. 지금은 TV,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한국문화의 전파속도가 빨라지

고 있으며 실제 예로 현재 한국 드라마의 인도네시아 방송 횟수는 중국이나 홍콩의 드라마 보다 상당히 많다. 그만큼 한국드라마를 좋아하는 시청자가 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류 시장은 급 팽창할 것으로 낙관한다.”

하지만 그는 또한 상업성을 띄는 한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의 이미지는 기업의 세계 진출이 바탕이 되었다. 한국의 문화, 즉 한류란 기업의 세계진출과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전문가 집단에 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상업성이란 세계진출과 타 국가와의 문화적 충돌을 완충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한국 및 중국, 대만, 홍콩 연예인들을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팬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서 이 직업이 좋다고 웃는 션 대표는 상업적으로 성공은 못했지만 한국 기획사들에게 믿음을 준 점, 금번 비 공연에 대한 뜨거웠던 반응 등에 너무 기쁘다고 한다.

현재 그는 비(Rain)이후 또 다른 한국 가수의 멋진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그는 올 해 안에 한국의 톱 그룹인 슈퍼주니어와 SS501의 멋진 공연을 자카르타에서 관람할 수 있을 거라고 살짝 귀띔을 해줬다.

상호간의 주역,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김희범

인도네시아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 대다수가 한국인이다. 또한, 한국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는 통계적으로 또한 눈으로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바이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이국이 아닌 타국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문화, 다른 환경 등 친숙하지 않은 것에 가까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짐으로 여겨지며 꼭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불굴의 한국인은 이를 극복해 나가며 어느덧 4만 명 규모라는 최대 외국인 교민사회로 성장해 직간접적으로 교민사회 내에서 또한 현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욱더 밀접해 지고 있다. 고향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 인도네시아에서 같은 혈통과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반갑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에 반대로, 인도네시아 현지 사람들은 한국인을 반갑게만 여기지는 않는다. 한국인들의 그릇된 행동과 슬기롭지 못한 행동 등이 자아낸 결과이다. 한국인으로써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잘못된 인식을 산 것은 앞으로의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교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점차 커져가는 교민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이 자국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할 임무가 있으며, 개개인이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임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인을 쉽게 볼 수 있다.’ 라는 말을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보아 부정적인 측면으로 말을 바꿔 보자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인들의 부끄러운 행동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로 바꿀 수 있다. 공공적인 장소를 지나칠 때에도 한국인들의 나쁜 습관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예로는, No Smoking(금연) 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혀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길거리에다가 아무렇게도 앉은 듯 쉽게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보도에 껌 또는 침을 뱉는 행위 등이 있다.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지켜져야 할 예의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이다. 개인의 편리를 위해 타인에게 불편함을 제공하는 것은 불건전한 행위이다. 실례로, 언젠가 한번 한국

식당이 아닌 외국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종업원이 메뉴판을 가져오면서 자꾸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고, 종업원이 메뉴판을 주는 동시에 말을 한마디 건넸다. “혹시 한국인이십니까?” 그러자 나는 당연지사로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 종업원은 “땀에 침을 뱉지 마십시오.” 라고 당부했다. 나는 그저 당황할 뿐이었다. 한국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묻고 한국인임을 확인하자 침을 뱉지 말라고 하는 어이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기분이 굉장히 상했지만, 함부로 표현 할 수 없었고, 식사를 마친 후 집에 돌아오면서 도대체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보는 한국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인이 아닌지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바는 아니지만, 한 가지 알 수 있을 법한 건 우리에게 느끼는 부정적인 시선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 앞에서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말과 연관을 지을 수 있다. 이렇듯, 타국에서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잘못된 행동과 습관이 어느새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 과연 이들이 이국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을까? 한국이 현재 인도네시아보다 더 발달했고 선진국으로써 한 발자국 더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한국인 모두가 이렇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한국인의 특성상, 무엇이든 어떠한 기준에 비해 우월하다면 그 기준치에 비해 부족한 것을 비하하거나 중요치 않게 생각한다. 이는 국가적 우월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례로는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처음 인도네시아로 이민 갈 예정이라고 알렸을 때, 친구들은 적극 반대했다. 우리나라보다 덜 발전된 나라라는 것, 선진국이 아닌 나라라는 것만 두고 친구들이 굉장히 비하했던 경험에 있다. 풍자스럽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인도처럼 여기고, 사막으로 생각하며 교통수단으로써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이 아닌 코끼리나 자전거 등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 다른 예로는, 실제 인도네시아에서 본 한국인들의 국가적 우월감

때문에 생기는 경우이다. 차를 타고 가며 혹은, 길거리를 걸어 다니며 아무렇지 않은 듯 창문을 열고 쓰레기를 버리거나 당연하다는 듯 들고 있던 쓰레기를 바닥에다 버리고는 ‘한국이 아닌’ 인도네시아니까 괜찮아’, ‘인도네시아가 깨끗해져 봐야 얼마나 깨끗해지겠어?’ 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곧, 인도네시아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시급히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가 1910년 일제에게 국권을 강탈당했을 때 국가적으로 더 이상 발전 할 수 없었던 시절을 생각하며 인도네시아를 존중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국가로써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나무가 무성하고 산소(Oxygen)가 많이 배출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바, 거대한 대자연을 소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천연자원과 엄청난 노동력, 어마어마하게 큰 토지 등을 토대로 삼아 앞으로 한국만큼 아니 한국보다 더 발전 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다. 많은 나라들이 인도네시아가 엄청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인도네시아와의 교류를 좀 더 확장하고 상호간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조금 더 발전 할 수 있었던 계기에는 인도네시아도 포함되어 있다. 초등학교 과정 중 4~5학년 사회책에서 한국 기업의 대다수 산출량이 인도네시아로 보내지고 있음을 본 적이 있다. 한국의 기업들이 성공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인도네시아가 기업 성공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노동력과 값싼 인건 비용, 큰 토지, 대자연이 한국의 기업들에게 빛을 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장 과정에는 인도네시아의 큰 도움이 있었으며 앞으로의 성장에도 큰 힘을 불어넣을 것이다. 우리는 인도네시아를 존중히 생각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들은 자국에 대한 문화적 우월감 또한 갖고 있다. 이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자국에 대한 애국심, 자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다른 문화를 가진 국가를 비하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특히 종교적인 면에서 자주 드러나는 부분이다. 인도네시아의 인구 중 소수를 제외한 절반 이상의 현지인들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다. 이슬람은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신을 믿으며 개개인의 일들이 잘 풀리도록 기원하는 종교이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종교들에 비해 참배를 많이 하고, 다소 개방적인 기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게끔 하여 (알라)신을 받든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일부의 한국인들은 그러한 이슬

람 문화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고, 이상한 문화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에 비해 개방적인 기도를 하는 이슬람 사람들의 기도 방식을 보고는 ‘이해할 수 없는 종교’라거나 ‘그저 시끄럽게 소란 부리는 행위’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이슬람 전통 의식 중 ‘Puasa’를 보고는 ‘무식한 행동’이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른 문화를 두고 의미조차 모른 채 단언하는 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행동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낮추는 행위와 같다. Puasa는 정해진 기간 동안 금식을 함으로써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 겪어보는 시간으로써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중요시 여겨지는 종교적 문화이다. 이러한 의미 있는 종교적 행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만이 옳다는 독선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기르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며 보다 더 넓은 시선으로 멀리 봐야 할 것이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이라면 대부분이 불법 소주 유통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불법으로 소주를 컨테이너에 실어 밀수해 오다가 적발되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 또한 한국인들의 술 문화가 초래한 사건이 아닐까 싶다. 한국인들의 술 문화를 위해 소주를 밀수해 오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인도네시아 내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 이 일로 현지 언론들이 한국인이 주도한 대규모 소주밀수사건을 사건과 함께 뉴스와 신문에 크게 보도하고 현지에서 한국인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는 논평까지 곁들이자, 현지교민들은 오랫동안 쌓아온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어느새 이상하게 퍼져버린 한국인들의 잘못된 문화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보는 한국인은 법을 훼손하고 자신들의 욕구만 충족 시키면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잠겨있던 자물쇠를 열고 문화 간의, 국가 간의 새로운 문을 열어 타국을 좀 더 이해하고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타국에서 겪어야 할, 참아야 할 문화적 차이를 견뎌내지 못하고 올바르게 않은 언행으로 타 문화를 비난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또한, 자국이 아닌 곳에서는 행실이 올바르지 않아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배제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인 만큼 더욱더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을 찾아 더 성숙하고 건전한 인도네시아의 교민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인종과 문화는 다르지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하나의 체계를 만들고, 상호간에 더불어 지냄으로써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인도네시아 내에 있는 모든 곳에 한국의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들어 사는 그곳이 고향



이수진

처음, 남편이 자카르타 의류업체에 일하기로 결정된 후, 도대체 인도네시아란 곳이 어디 붙어있는 나라인가하고 궁금해했었는데, 어느덧 자카르타 생활이 10년을 넘어서고 있으니, 나 자신 이제는 인도네시아 사람이 다 된듯하다. 서울을 가면 주위 분들이 다들 위험한데 산다고 고생한다는 말을 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참으로 살기 좋고 사람들도 참 넉넉하다는 말씀을 해드리곤 하니 스스로 자카르타 사람이 다 되었구나..... 이제는 오히려 한국보다 자카르타 공항에 돌아왔을 때 ‘아, 집에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가 되었다.

처음 내가 가졌던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 대한 인상은 보통 한국사람들이 바로 왔을 때 느끼는 것처럼, 깨끗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발전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나라라는 것이었고, 부리는 가정부나 기사 등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그때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다.

이제라도 내 주위에 있는 인도네시아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잘 대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남편은 종종 내게 옛날 미국 대형 바이어업체 회장이 한국 봉제공장을 방문했을 때 감명받았던 일을 예기해주며 나의 그런 생각을 칭찬해주니,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다.

좋은 호텔에서 식사를 모시겠다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의류를 직접 만드는 여공들이 식사하는 곳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열악한 식사를 아주 즐거이 하면서 여공들에게 통역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 미국과 한국을 이

어주는 숨은 일꾼이요, 코리아의 미래가 여러분들 때문에 아주 밝으므로 부지런히 기술을 익혀두면 나중에 크게 쓸 것이란 말씀을 해주고, 대부분 여공들이 근무 후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주경야독한다는 말씀을 듣고, 주위 여공들 손을 하나하나 쓰다듬어주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스러웠다는 말을 한다.

남편도 의류공장에서 일을 할 때 개개인의 인도네시아 직원들 노력으로 회사가 잘 돌아간다는 말을 해주며 인도네시아 직원들을 감싸 안으려고 가장 큰 노력을 하곤 했다는 말을 하는데 요즘 들어 나는, 그러한 남편의 사고방식이 생각하면 할수록 인도네시아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던 터라, 여공들 예기는 남의 일 인줄만 알다가, 남편이 일하던 공장을 우연히 한번 방문하게 되고 그때 남편이 여공들 식사하는데 가서 격려해주고 같이 식사도 하는 것을 보고 남편이 직원들을 동생들처럼 대해주니 그 직원들도 남편을 잘 따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조그만 사업을 같이 하며 직원들을 쓰면서 이런저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남편 말처럼, 내가 마음을 열고 인간적으로 대하려고 하니 직원들이 아주 미안해하고 자기 생각이 짧았다고 하며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역시 내가 대우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우해주면 그만큼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국과 달리 이곳은 연중 여름이라 자연히 사람들도 조금은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게 되면서 나도 인도네시아사람들처럼 여유 있게 생활하자는 생각을 가지게 된 후로는 예전과 같이 버럭 화를 내는 일이 이제는 거의 없게 되었는데 어쩌다 한국을 들어가서 열심히 생활하는 한국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보기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은 인도네시아 같은 게으름의 여유'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된다.

남편은 스스로 해외생활이 좋아 자카르타에 사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항상 부모형제가 당연히 그립겠지만 '정들며 사는 그곳이 곧 고향'이란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는 말을 하면서 해외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 하며 또한 한국인은 해외로 나가면 위대해진다는 말을 늘 하곤 한다.

자카르타에 살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계속 잡아나가고 한국인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면 주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과 한국사람이 인도네시아 발전에 많은 역

활을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우리 후배 세대가 더욱 안정적인 토대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나도 남편 말대로 일은 확실히 시키되 인간적으로 직원들을 대하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도 자카르타에서 계속 살아나가겠지만, 먼 훗날 2-30년 후 은퇴할 나이가 되어 그 동안 동고동락했던 좋은 이웃들과 함께 그때는 훨씬 많이 발전했을 인도네시아 전역을 유유히 여행할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인도네시아에 살게 된 것이 참으로 좋은 인연이요 행운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나갈 생각이다.

무엇보다 남편이 있음으로써 가장 큰 의지가 되고 이제는 교민사회가 더욱 발전해나가는데 우리 주부들이 한 몫을 단단히 맡아 때로는 깔라만판 외로운 밀림에서 때로는 공장과 사무실에서 회사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우리 남편들을 잘 도와와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안내

알립니다

대사관은 우리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자녀(외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에게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우리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위 대상자의 자녀로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우리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이중국적자는 제외)
- ※ 다만, 병역기피 목적 또는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경우는 제외

2.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부착), 여권 및 여권사본 (인적사항란) 각 1부
- 기본관계증명서, 구 호적부 등 우리국적 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자녀는 직계존비속을 입증하는 서류(출생증명서, 주민등록부 등) 추가

3. 비자 종류

-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2년의 복수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수수료 80불 상당)
- ☞ 유효기간 경과시 동일한 조건으로 재발급 가능

4. 비자 내용

- 5년간 별도 비자없이 수시 출입국 및 매회 입국시 2년간 체류 가능
- 90일 이상 체류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는 필수 사항
- ☞ 거소신고 후 매회 2년씩 체류기간 연장하여 계속 체류 및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수시 출입국 가능
- 거소신고한 경우에는 국내취업(단순노무 및 사행행위 등 제외), 부동산 매입, 은행 거래, 의료보험 등 자유로운 국내 활동 가능

작은 것부터 한국의, 한국인의 사랑을 심자



이 명숙

오래 전 일이지만 한국교포의 가게에 온 사내아이의 고추를 만졌다고 변태 추행으로 고발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미국에서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남아선호 대상으로 인해 호감이 가고 사랑스러우면 사내아이의 상징인 고추 만지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문헌까지 동원해 입증해야 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회교도 지역에서 한국의 건설현장 직원이 놀러 온 말레이시아 아이가 너무 귀여워 머리를 쓰다듬어 준 것이 아이를 저주한 것으로 현지인에게 비쳐지고 말썽이 빚어졌던 경우가 발생했던 일도 있다고 한다.

외국에서 살다 보면 현지 문화의 이해 부족과 현지 문화를 몰라서 현지인들과 불협화음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된다. 현지인과 원치 않는 오해를 사게 되고 이런 일들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민 전체와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게 되는데 더 큰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처음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현지인들의 수염 기른 모습과 긴 손톱 그리고 손으로 꼭꼭 눌러 밥을 뭉쳐 먹는 모습을 보고 문화충격을 맞보았었다. 구릿빛 얼굴에 덩수룩한 수염까지 있으니 아무것도 모르면 용감하다고 운전사에게 수염을 깎으면 더 잘 생겨 보일 거라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옛날 양반들 보고 ‘당신 상투를 자르시오. 그러면 더 좋아 보일 것 같소’ 하는 말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요즘에서야 그때 생각을 하면서 혼자 웃곤 한다.

아랍권에선 수염을 중요시해서 중요한 맹세, 서약을 할

때 ‘수염에 걸고...’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죽음에 버금가는 일이 있을 때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 머리를 삭발하는 광경을 종종 텔레비전을 통해 보게 된다.

각 나라마다 내려오는 문화, 생활습관, 가치관, 의식구조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타국 땅에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어를 배울 때 먼저 이 나라의 문화부터 배운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란 생각이 든다. ‘한인뉴스’ 같은 지면을 통해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준다면 더욱 좋을 것 이란 생각도 든다.

최대 교민 사회를 이루고 있는 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바른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여 현지인들과 각별한 인간관계를 이어간다면 한 개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이미지 제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교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이 나라의 좋은 문화를 함께 하고 우리 나라의 중요한 문화를 이 땅에 심어준다면 서로 WIN-WIN 하게 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인니인이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빨리’ 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빨리 먹은 밥이 체하듯이 빨리빨리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한없이 느리고 더딘 현지인들에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빨리 하면서 정확하게 해내는 일,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나라가 전쟁의 잣더미 속에서 수십 년 전에는 인도네시아 보다 훨씬 못살던 나라였다고 한다. 노동력의 질인

빨리빨리 하는 부지런함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자녀교육에 발 벗고 헌신한 부모들의 교육관과 양질의 노동력 덕분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가.

현지인들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좋은 한국, 한국인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사원가족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전 사원 가족 운동회, 가족의 애경사에 도움주기 등 사원가족 관리를 잘하면 사원과 가족들이 회사에 더 많은 애정과 일체감을 갖게 될 것이다. 현지 학생들 중에 가정 형편이 어렵고 편부모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하기, 한인 교민들이 창고세일 등을 통해 모금 운동을 하여 재원 확보하기 등. 각 교민 가정에 속한 가사도우미 현지인에게 1인 1통장 갖도록 하기.

사시사철 자연에서 양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자연 조건 속에 있는 열대. 아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구조의 특징을 들라면 남보다 더 많이 일해서 많이 저축하고

산다는 의식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다. 내가 이곳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사도우미 현지인에게 처음부터 통장을 만들도록 권유했었다. 순순히 잘 따라주어 월급이 나오는 즉시 은행에 저금하도록 습관을 들여주었더니 몇 년 동안 남편은 다른 곳에서 수위를 하고 함께 모은 돈으로 시골에 땅 사고, 소사고 부부가 함께 귀향한 경우도 있었다. 그 이후로 들어오는 현지인에게 계속 그렇게 권유한 결과 그들은 돈 모으는 재미를 알았고 알뜰하고 사치하지 않고, 헛되이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우리 각자의 환경 속에서 현지인에게 작은 것부터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갖고 다가간다면 우리 한국 교민들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놀라운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 타국 땅에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작은 몸짓이 될 것을 확신한다.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을 지라도.....

한인뉴스 정기구독자 모집합니다.



한인뉴스는 보다 많은 교민들에게 정기적으로 한인사회의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정기구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방법

하기 한인뉴스 계좌번호에 정기구독료를 납부하시고

1. 성명(한글 / 영문)
2. 주소
3. 연락처(회사나 자택 / 핸드폰 번호)
4. 구독료 납부 영수증을

팩스: 021-526-8444 나 이메일: haninnews@naver.com 로 보내주시면 정기구독 신청확인서와 함께 1년간 한인뉴스를 발송해 드립니다.

정기 구독료 (1부/1년)

- JABOTABEK : 30만 루피아/년
- 기타 지방 : 40만 루피아/년

계좌번호

- A/C No : Bank Woori Indonesia
DDA-913-014112 (Rp 계좌)
- Name : HANINEWS Fax : (021) 526-844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협의회 인도네시아 지회

주소: Korea Center Building,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전화: 021) 520 6655 / 팩스: 021) 520 3535

지회장: 김광현(asokapk88@gmail.com)

간사: 안선근(ali1212@centrin.net.id)

편집담당: 김문환(mhkasindo@cbn.net.id)

평통 칼럼

『평통광장』의 문을 열며……..

김문환/평통광장 편집담당

지금은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지만 당시엔 작은 어촌에 지나지 않았던 동해안 최북단의 소도시에서 나는 국민학교 시절을 보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눈을 비비며 동네우물가로 나가보니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 웅성거린다. 간밤에 옆집에 살던 마음씨 좋던 김씨가 간첩혐의로 경찰서에 잡혀 갔단다. “그렇게 친절하고 인사성 바르던 그 아저씨가 간첩이라니”라며 혀를 차며 목소리를 키운다. 동네 아이들과 고무공으로 축구를 한 탓에 곤히 떨어진 나의 잠을 깨우는 굉음이 모든 집안 식구들마저 안방에 끌어 모은다. 바로 앞 바다에 간첩선이 출몰하여 아군이 함포 사격을 해가며 간첩선을 쫓고 있는 중이란다. 이런 경우를 자주 겪는 사이 ‘간첩’이라면 무조건 ‘나쁜 사람’, 또는 행색이 좀 ‘이상한 사람’ 정도로 머리에 각인되었다. 군에 입대하여 최전방 부대에 배치 받았다. 철책으로 선이 그어진 휴전선 너머로 보이는 적의 예상진지를 향하여 사경도를 그리는 것이 임무였다. 발사 명령만 떨어지면 내가 짐짝어 놓은 화집점에 105미리 포탄이 쏟아 질 것이다. 동시에 그들이 응사한 포탄도 우리 진지로 날아 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양편 중 한쪽이 죽을 수도 있고 양쪽이 모두 피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단어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이라는 어휘가 만들어진다. 제대 말년이 되어 사단 교육대로 파견되어 ‘공산당의 죄악상’을 신병들에게 가르쳤다. 그들의 죄악상을 실제로 본 적도 없으면서 공산당은 무조건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는 잔학한 인간들이라고

세뇌시켰다. 성년이 되어 결혼을 했다. 그런데 나의 장인은 함경도 출신이었다. 우리 딸 아이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기간에 틈을 내어 데리고 간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녘을 보고 돌아오더니 실향민인 외할아버지의 애절한 소망을 글로 표현하여 전국지에 실렸다.

작년 7월부터 나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이라는, 한인사회에 말도 많던 직책을 타의반으로 떠맡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머리 속에서 진화되어 온 ‘간첩’, ‘공산당’, ‘전쟁’, ‘이북’, ‘실향민’이라는 개념을 이제 어떻게 재정립하여야 할 지 혼돈스럽다.

2009년 11월 5일 대사관에서 열린 평통 인니지회 총회에서 『한인뉴스』 지를 통해 ‘평통소식’을 널리 알리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그 소식들이 저장되어 있는 『평통광장』의 대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광장은 정부기관이나 평통위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교민 누구나 들러 볼 수 있는 열린 광장임을 양지하시고 <평통 칼럼>란을 통해 평화통일에 관한 에세이, 시론 등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소신 있는 글들을 기고하시어 평화통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제한된 지면사정에도 불구하고 『평통광장』이라는 장소를 제공하여 주신 『한인뉴스』 발행인, 편집인 및 편집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통 동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설치 근거를 둔 헌법기관으로, 민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정책을



초당적, 범국민적 차원에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창설된 대통령 직속의 유일한 통일자문기관이며,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온 겨레의 염원과 의지를 대변할 수 있고, 지역과 계층, 정파와 세대를 초월하여 각 분야에서 대표성을 지닌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있으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2010년도 평통 인니지회 사업계획

1. 친선 골프대회 및 신년교례회(1월)
2. 현지 4개 대학 한국어과 학생 대상으로 한국 사회, 문화, 평화정책에 관한 글짓기 대회(상반기)
3. 상반기 평통자문회의 인니지회 총회
4. 인니 고아원에 위문품 전달 (하리 라야 전)
5. 한국국제학교에 장학금 전달
6. 『한인 뉴스』 지에 평통소식 게재
7. 인도네시아 내 약 20개 단체협의회에 평통소식 이메일 송부
8. 북한학 전문가(교수) 초청, 교민 및 학생 대상 강연회(하반기)
9. 건국62주년 국민통합 글짓기 및 주장 말하기 대회(하반기)
10. 하반기 평통자문회의 인니지회 총회
11. 밥퍼운동 전개

김대식 사무처장 경실련 통일포럼 강연 요지
(2009년 12월 27일 명동 퍼시픽 호텔)

“올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고 좋은 성과를 확신한다. 올해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남한을 비난하지 않고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말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원만한 남북관계를 강조하면서 이에 화답했다. 2008년 옥수수 5만 톤 지원에 대해 북측의 응답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1만 톤 수용의사를 밝혀 왔다. 금년은 6.25사변 60주년, 일제강점 100주년, 독일통일 20주년 등 의미 있는 해로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그 장소로서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개성이 적지(適地)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폐기 문제에 대해선, 지금 당장 북한이 핵폐기를 할 리도 없으니 제1단계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제2단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제3단계 국제공조 속 핵폐기 등의 수순을 밟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남북관계에서 만큼은 여야 및 진보, 보수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료 열람

「G20 정상회의」 한국개최(자료제공 대사관)

» 국제적 위상

- * 지구촌의 새로운 운영체제, 세계질서의 구심점.
- * 경제, 금융은 물론 식량, 에너지 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통해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의 중심축으로 등장.

» 경과

- * 2009년 9월 24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의에서 「G20」을 세계 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 (Premier Forum)으로 공고화 하였으며, 한국을 2010년 11월 개최예정인 「G20 정상회의」 장소로 정하고 정례화하기로 결정.

평통광장

>> G20 정상회의 유치 의미

* 아시아 변방에서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시키는 역사적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함을 의미

>> 경제적 의미

* 보호무역 배경, 거시정책 국제공조 등 국제경제 주도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인.

* 특히 국제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이끌어 낸 글로벌 리더쉽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

* G20체제 출범은 기존 「G8」 중심 세계 경제체제의 전환을 의미하며, 한국이 국제경제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운영주체로 부상.

* 실물경제적 측면에서 약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예상

>> 민족사적 의미

* 국격(國格), 국운(國運) 상승을 통한 선진 일류국가 구현

* 구제사회의 중재자, 균형자, 조정자 위치로 격상

* 특히 강제병합 100주년이 되는 해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함은 외교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함

>> 기대효과

* 유, 무형의 막대한 국익 제고

* 국가브랜드 가치 및 국격 상승

* 글로벌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세계시장 제패도 가능





행복한 아이 만들기
프 · 로 ·젝 · 트

글:이전순

행복한 아이의 비밀 3

아이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

- 게임기보다 싸고 아이스크림보다 건강에 좋은 것!

수많은 부모들이 매일같이 마음속에서 가장 자주 떠올리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왜 아이들이 속 썩이지? 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왜 자꾸 일을 저지르지? 왜 내말을 듣지 않지? 싸움박질, 놀리기, 말 안 듣기, 말다툼, 어지르기, 성가시게 괴롭히기 등은 '왜'하는 걸까요?

아이들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말썽을 피웁니다. 뭔가 아쉬운 게 있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비싼 것은 아닙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이러한 '아쉬움'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문제여서, 아이들을 단순히 행복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 자체를 유지시켜 줍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후의 유럽은 초토화된 상태였습니다. 산적한 문제들 중 하나는 전쟁 중 부모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이산 등으로 생겨난 수많은 전쟁고아들의 구호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전란에서 비켜나 있던 스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들을 동원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 어느 의사는 고아가 된 아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보살필 수 있을지 연구하는 과제를 맡았습니다.

그는 고아를 돌보는 가장 훌륭한 방법을 찾기 위해 유럽의 여러 나라에 있는 수많은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미군 야전병원이 고아보호시설을 만들어 아기들을 위생병동의 스테인리스 요람에 눕히고 말끔한 제복을 입은 간호사가 특수 제조된 분유를 4시간 간격으로 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외딴 산골마을에 트럭 한 대가 와서는 운전사가 "이 아기들을 돌보아주실 분 계십니까?"하고 여섯 명의 울고 있는 아기들을 마을 사람들의 손에 맡기고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들은 거기서 마을 아이들, 개, 염소, 마을 여인네들에 둘러싸여 염소젖이나 여럿이 함께 먹는 스투를 얻어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스위스 의사는 서로 다른 양육시설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비교했습니다. 아기들의 몸무게를 잴 필요도, 아기의 웃음이나 눈 맞춤을 확인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인플루엔자나 이질이 만연하던 당시에 그는 가장 간단한 통계수치인 사망률을 확인했습니다.

비교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전염병이 유럽을 휩쓸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그 외딴 산골마을에 남겨진 아기들이 야전병원에서 과학적이고 위생적으로 양육되고 있던 아기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자라나서 더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 의사가 알아낸 것은 이미 여인네들이 오래 전부터 알아왔던 사실이었을 뿐입니다. 즉 아기들이 살아가려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지요. 야전병원의 아기들은 애정과 자극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골마을의 아기들은 의식주 면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받았지만 병원의 아기들보다 훨씬 더 건강했습니다.

물론 그 의사가 '사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그런 용어의 사용에 대해 질색을 합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 두서너 명의 특별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잦은 피부접촉(스킨십)
- 안아주거나 얼러주는 것과 같은 부드럽고 활발한 동작
- 눈맞춤, 웃음, 알록달록하고 활기 넘치는 환경
- 노랫소리, 애기 소리, 웅알거리는 소리 등

이것은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발견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기들은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는 것 이상으로 따뜻한 인간적인 접촉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아기들에게 이런 인간적인 요소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기들은 쉽게 죽고 말지요. 그렇다면 좀 더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영아기의 아이들은 안기거나 누가 어루만져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동기의 어린이들은 누가 안아 주는가 따지기보다는 안기는 것과 만져주는 것을 좋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십대들, 사춘기나 청소년기들의 아이들은 그런 접촉이 꽤 어색하지만 자기들도 애정 어린 관심을 받으면 좋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십대 후반이 되어 누군가를 특별히 좋아하면서 그 사람의 관심을 열렬히 원하게 되지요.

우리 모두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주목해주고 가능한 한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대화에 끼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경청하고 더 나아가서 존경까지 해주기를 바라지요.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의 신체적인 욕구를 채워주지만, 단지 그것만이라면 아이들에겐 아쉬운 것이 생깁니다. 아이들에겐 심리적인 욕구도 있으며 그것은 단순하지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려면 애정과 관심과 칭찬이 결들여진 매일 매일의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주어지면, 그리고 그 내용이 엄마와 아빠가 산더미 같은 집안일이나 신문에 파문혀 통명스럽게 내뱉는 말이 아니라면, 아이는 금방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좀 자랐거나 이미 십대가 되어버렸다면 조금 더 깊은 관심과 애정과 칭찬이 필요합니다.

‘쥐 심리학자’들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할 수 없

는 주제를 쥐를 가지고 실험함으로써 행동습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연구자들은 쥐들에게 먹이와 물을 주고 조그만 손잡이가 있는 특수 우리에서 살게 했습니다. 쥐들은 먹고 마시고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나중엔 누구나가 물어볼 만한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조그만 손잡이는 뭐지?’ 쥐들은 손잡이를 눌러보았습니다(인간인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쥐들도 이것저것 건드려보며 놀입니다). 그러자 우리에 있는 조그만 창문이 열리면서 우리 밖에서 돌아가는 영사기의 화면이 보였습니다. ‘툼과 제리’였을까요? 어쨌든 창문은 곧 닫혔고 쥐들이 영화를 더 보려면 손잡이를 다시 눌러야 했습니다. 쥐들은 영화를 계속 보기 위해 손잡이를 열심히 눌러냈습니다. 이로써 행동의 첫 번째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쥐처럼(또는 인간의 아이들처럼) 지능이 있는 존재들은 뭔가 흥미로운 것을 좋아하며 이것은 또 두뇌계발에 도움을 줍니다.

그 후 연구원들은 쥐들을 다른 우리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우리에는 음식과 물이 있었으나 손잡이도 창문도 없었습니다. 쥐들은 처음 한동안 잘 지내는 듯싶더니 곧 난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긁어대고 싸우고 털을 비벼대는 등 꽤나 못된 행동을 하는 거친 쥐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쥐처럼(또는 인간의 아이들처럼) 지능이 있는 존재들은 지루함을 못 참아낸다는 것입니다. 설사 어리석고 파괴적인 행동이라 하더라도 뭔가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연구원들의 실험은 잔인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에 음식, 물과 함께 바닥에 배터리와 연결된 조그만 전선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 전선에는 시간 간격을 두고 전기충격이 전해졌습니다. 그 전기충격은 쥐들이 고통은 느끼지만 죽지는 않을 정도였습니다(이제 왜 어린이들이 실험 대상이 아닌지 알 수 있지요?).

드디어 쥐들을 우리 밖으로 내몰고, 자기네가 원하는 우리를 선택해서 들어가게 했습니다. 쥐들이 가장 선호한 우리와 두 번째로 선호한 우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물론 쥐들은 영화가 있는 우리를 제일 선호하였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부분은 쥐들이 두 번째로 선택한 우리였습니다. 쥐들은 음식과 물만 있는 우리보다 전기충격이 있는 우리를 선호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쥐처럼

립(또는 인간의 아이들처럼) 지능이 있는 존재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나쁜 일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란다

앞의 얘기를 바꾸어 말하면, 설령 고통스런 일이라도 일어나는 편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과 꾸중이나 야단을 맞고 한 대 쥐어박히기라도 하는 것 중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물론 애정 어린 관심을 최소한 하루에 두 번씩만이라도 받는다면 이런 얘기는 다 쓸데없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쉽게 정리해볼까요?

1. 아이들은 지루해지면 말썽을 피운다.

아이들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우리에 간혀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축구공이라도 들려서 근처 공원에 보내거나, 친구를 놀러오게 하거나, 놀이 그룹에 끼게 하거나,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이런 저런 놀이를 하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게 하면 지루해지지 않는다구요? 글썄요. 그것은 썩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고 본인이 원하는 일이라면 괜찮지만, 부모의 앞서가는 마음 때문이라면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들어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지요.

2. 아이들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 말썽을 피운다.

여러분은 매일 매일 아주 잠깐이라도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관심과 사랑을 담은 스킨십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아이들에게 안정감이 전해질 만큼 여러분 자신이 여유 있고 행복한 상태입니까?

3. 아이들은 주목을 받기 위해 말썽을 피운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부모의 주의를 자기에게 돌리고 나서 아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아이가 속으로 '앗싸~! 엄마 아빠가 나에게 관심을 보인다'라는 것이 느껴지신다면, 아이가 '착하고 바른' 일을 해서 부모의 관심을 끌 수 있게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4. (조금 큰)아이들은 자기의 비전이나 목표가 없을 때 말썽을 피우거나 힘들어 한다.

특히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은 스스로 비판의식이 한참 커지면서, 자기의 관심분야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나 본인 인생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싶어 하지만 같이 의논하거나 깊은 관심을 나눌 상대가 없다면 '케세라세라'가 되거나 '엉뚱한 짓'만 골라 하게 됩니다. 혹은 마음을 닫고 입도 꼭 다문 상태가 되기도 하지요.

이미 1950년대부터 밝혀진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를 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에게 말을 할 때 굉장히 통명스럽고 짝막하게 합니다. '진섭아, 그 문짝 닫지 못해!' '이리 와!' '떡어' 등등. 어떤 부모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 귀여운 민수, 문 좀 닫아줄래? 바람이 많이 불지? 네 동생 감기 걸릴라.' 민수가 진섭이보다 더 많은 어휘를 기억하여 구사할 수 있으리란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겠지요.

아이들의 머리를 좋게 하는 기초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중에 태아가 온갖 소리를 듣게 한다.

엄마는 기분 내키는 대로 노래를 하거나 흥얼거려도 되고 음악을 틀어도 좋습니다. 아빠들의 경우, 아내의 배에 입을 대고 아기에게 말을 걸어도 좋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기들은 아빠의 목소리에 익숙해져 편안함을 느끼고, 나중에 아빠가 아기를 돌볼 때도 쉽게 적응을 합니다. '반복'과 '친근함'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산모가 임신기간 중에 어떤 TV 드라마를 즐겨 시청했는데, 그 드라마 주제곡이 그 태아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 태어난 아기에게 같은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노래를 들려주고 음악을 틀어준다.

부드럽게 흔들어주는 것은 아기들을 즐겁게 하면서 리듬감을 키워줍니다. 이 리듬감은 말하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기를 포대기로 업거나 유모차에 태우고 걷는 것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기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간단한 말로 설명해줍니다(이때 아이들이 웅알거리게 마련인 유아어를 부모가 쓰지 않도록



록 하십시오). 아이들이 그 설명에 나온 단어를 입 밖에 내면, 자연스럽게 반복하면서 연습시킵니다.

3. 아이의 언어가 점점 발달해갈 때에는 아이가 한 말을 반복하거나 한마디씩 덧붙여준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한 말에서 타인의 반응을 얻고, 또 어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됩니다. ‘까까’ ‘과자 줄까?’ ‘까까 줘!’ 잠시 후, ‘까까 빨리 줘?’ ‘과자 빨리 달라 구?’ ‘과자 빨리 줘!’ 등의 식으로 말입니다.

가족관계에 대해 잘 알려진 것 중의 하나는 아이들-특히 남자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때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이 해줄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것을 아이들에게 제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은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자전거를 고친다거나, 정원을 손질한다거나, 오목이나 바둑을 같이 둔다거나, 축구 게임을 같이 본다거나, 등산을 함께 간다거나 등등.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대화도 훨씬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속의 고민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다정한 성격의 아버지라면 아이들의 인생행로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인생방향을 할리우드 영화나 동년배 친구들, 그리고 게임기에 맡겨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한다면, 다음의 규칙을 엄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목표에 집착하거나 일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겠습니다. 반드시 어떤 결과를 이루어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먼저 엄두에 두십시오. 그저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즐기면서 누리십시오.

그리고 부모가 편한 시간을 골라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부모가 시간에 쫓겨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시계만 보고 있게 된다면 즐거움 대신 어떤 의무감이나 지루함으로 가득 차게 되겠지요. 아이들은 금방 자랍니다. 부모 노릇을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에 기쁨을 느끼며, 이것저것 가르치고 소소한 것에도 마음껏 웃으면서 함께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여러분은 아이들이 가져다주는 조그만 기쁨들

을 새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은 결코 시간낭비가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글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아빠가 학위과정에 있을 때입니다. 자료가 집에 있어 집에서 주로 공부하는 아빠를 보고 아이들은 같이 놀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들이 4살, 7살 때였습니다. 집은 좁고 아이들은 쿵쾅거리고 공부해야 하니 희들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장난감도 사줄 수 있단다. 우리 밥 먹고 나서 30분은 아빠랑 신나게 놀고, 아빠가 공부할 때는 조용히 하고 엄마랑 놀면 어떨까? 아이들도 약속을 하였고 아빠도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아이들은 식사 후 30분 동안 오목, 야구, 축구, 운동장 놀이 등 아빠와 신나게 놀았고 나머지 시간은 아빠가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엄마와 놀거나 나가 놀거나). 그래서 아빠는 박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아이들은 아빠와 신나게 놀면서 규칙과 약속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모두 자라서 기억조차 희미하겠지만, 그 시간들은 아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 그것은 부모들도 진짜로 원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전 순

이전순 씨는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와 대학원을 졸업(아동상담 전공)하고 동 대학원과 청주대학교에서 음악치료학과와 음악치료 전문가 과정 등을 수료하고 아동 및 정신치제자, 노인등의 심리치료 및 상담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녀뻬가 되면 쇠고기 먹어요.

발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즐기고 쉬었다가는 곳이다. 그들의 대표적인 종교는 '발리힌두'이다. 우리가 아는 힌두교는 소를 신성시하고 쇠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러나 일 년에 한번, 녀뻬에는 소를 잡아 맛있게 요리해 먹는 발리힌두 원주민들이 있다.

텐빠사르에서 차를 탄다. 동쪽으로 두 시간 가량 가는 데 어느 지점부터는 바다의 입술로 달린다. 그곳은 분주하던 발리시가지와는 또 다른 볼거리들이다. 그 풍경이 끝날



즈음에 왼쪽 오솔길을 만난다. 그 길을 따라 한참 숲으로 들어가면 산으로 만든 그릇에 담긴 마을이 나온다. 조상들이 터 잡아 살아온 그 마을은 멩아난(Tenganan)이라 불린다. 그곳 사람들은 모두가 힌두교이며 일 년에 한번 소를 잡아 쇠고기를 먹는 발리원주민들이다.

그들이 쇠고기를 먹는 날은 바로 힌두교의 가장 큰 명절인 녀뻬다. 같은 발리힌두이지만 녀뻬를 보내는 풍습은 다르다. 발리시내는 녀뻬를 맞이하기 위해서 삼 일전부터 발리의 안녕과 더러워진 세상을 정결하게 기원하는 제를 올린다. 첫날은 멀러스띠/Melestarikan 의식으로 둘째 날은 발리 남자들만의 춤, 께짜/Kecak의 흥겨움으로 저녁까지 달군다. 마지막 녀뻬 전날은 오고오고(OGOHO-GOHO) 행진축제를 벌여진다. 오고오고는 사람들이 메고 빙글빙글 도는 것



김성월

방송 프리랜서
수필가·프리랜서
hansol0508@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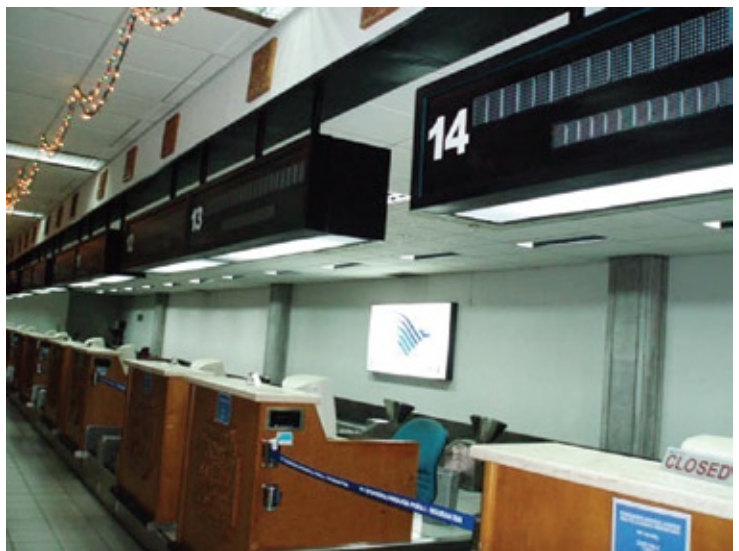
이 특징인데 쫓아 낸 악귀가 빙글빙글 돌릴 때 어지러워서 다시는 못 돌아오도록 길을 험해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녀삐(Nyepi)이다. 녀삐를 새해(çaka)라고도 한다. 녀삐는 스페(Sepi)에서 가져온 조용하다는 뜻이다. 그날은 동서양인 막론하고 발리에 있다면 꼭 지켜야 할 사항이 불사용, 일하는 것, 시끄러움, 외출을 금해야한다.

그날은 발리 섬이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춘다. 스사지(Sesaji) 먹으러 다니던 골목의 개들도 거리를 다니지 않는다. 버스 터미널도 항구의 선박들도, 국제공항이지만 이착륙하는 비행기도 없고 공항 안의 모든 시스템이 정지되었다. 믿기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을 볼 때 난 지구가 멈추려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꾸따의 파도는 여전히 철썩거렸고 하늘의 새들도 날아다니고 거리에는 삐짚랑(문화 순찰대)들도 다닌다. 밤이 되어도 아무도 불도 켜지 않는다. 눈을 떠도 감아도 눈앞이 깜깜한 세상이다. 이쯤에서 ‘그런 발리시내를 넌 어떻게 그리 잘 아니?’ 하구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실 것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꾸따 지역의 삐망꾸를 만나 발리의 문화를 한국에 알리자며 녀삐날 촬영허락을 부탁했더니 삐짚랑과 함께 다니고 사롱을 걸쳐 달라는 조건이었다. 물론 공항에 가셔도 KBS ‘놀라운 아시아’ 프로그램의 특성을 설명하고 촬영협조를 부탁하여 아주~ 어렵게 허락받았다. 변화하던 발리시내, 모든 문들이 닫힌 가게들, 아무도 없는 거리 먹고 버린 과자봉지만 이따금 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쓸려 다녔다.

조용한 시내와는 달리 한편 평야에서는 우사다 달람(Usada Dalam)이라 하여 이 날은 제단(Pura)에서 소를 잡아 받치고 놓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의식을 치루며 잡은 소의 고기를 다 같이 나



뉘먹는 날이다. 그들은 왜 쇠고기를 먹는가, 이유는 ‘신성시하는 소의 기운을 받아먹음으로 더 건강해지고 한해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조상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귀중한 마을의 풍습이란다. 쇠고기는 주로 훈연으로 익혀먹는데 이걸 ‘댕댕(deng-deng)이라한다. 적당한 크기로 썰어 주렁주렁 매달아 부엌의 연기가 올라오는 곳에 걸어두고 연기에 그 올려 익힌다.

평야년에는 아직도 벼들로 천을 짜서 생계를 꾸려가는 여인네들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젊은이들은 시내



가 나가고 있다. 그 마을에는 옷통 벗고 가시달린 선인장으로 싸움하여 피가 나는 전통풍습도 있다. 어깨에 파기 철철 흐르면 꾸닐을 발라준다. 된장보다 더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르면 상처가 쓰라린 자국에 소독되어 빨리 아문다고 한다.

다음 이야기 = 발리 아벤 마살(함동 화장식)

재인니 『한인예총』 제2기 출범

재인니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이하 『한인예총』)가 2010년 1월 7일 총회를 열어 신입 회장단을 선출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2008년 2월 창립을 한 『한인예총』은 2009년 봄 신상석 초대회장의 갑작스런 귀국으로 인해 소속 단체별로 활동해 왔다.

『한인예총』은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13개 한인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연합회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소속 단체별 회원이 350여명에 이른다. 이번 제2기 회장단 출범을 통해 일신한 면모로 새롭게 전진할 것을 다짐한 『한인예총』은, 특별히 2010년 총회에서 13개 단체 대표와 활동이 활발한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는 외적으로 화려한 것보다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연합체운영이 주목적임을 밝혔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손인식씨는 “우선 각양의 문화예술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기업인들의 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전제한 뒤 “재인니 『한인예총』의 존재 또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정서와 품격의 바로 잣대가 되지 않겠는가?”고 반문하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제2기 『재인니 한인예총』 회장단 부회장

이은애(음악협회 회장)
강희중(색동회, 서예협회 회장)
안선근(언어문화)

감사

인치혁(미술협회 회장)
최정순(루시플라워 아카데미 회장)

사무국장

정선(하나프레스 대표)

사무간사

엄종한(사진동호회 회장)
김영희(자카르타한인어린이합창단)

상임위원

정연규(월화차문화원 대표)
유지영(라뮤즈여성합창단 지도)
사공경(인니문화연구원)
이일하(이일하 뮤직아카데미 대표)
박재현(소리와 장단 대표)
장방식(한바페 대표)
손은희(문인협회 간사)



세종시 수정안,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최창규(명지대 경제학과)

세종시 논란은 2002년 9월 30일 여당이던 민주당 노무현 대선후보가 충청도 지역의 표를 의식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된 이후 수도이전 공약으로 재미를 보았다고 한 바가 있다. 이렇듯이 수도이전은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이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만큼 동기 자체가 정략적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 12월 29일 참여정부는 충청남도의 연기, 공주 주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국회본회의에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렇지만 2004년 4.15총선 이후 같은 해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수도서울은 관습헌법이라는 해석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수도이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무시해가면서 참여정부와 여당은 무리하게 수도분할 이전을 강행하였으며 결국 2005년 3월 3일 여야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향후 남북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세종시가 우리나라의 수도의 일부여야 하는 점에는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통일 후 수도를 생각해보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서울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인다. 요약하면 세종시 수도분할이전은 경제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결정이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의 해당지역의 표를 의식한 매우 비합리적인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투자한 비용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 세종시로의 수도이전분할을 백지상태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정치인들이 단순히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었던 많은 지방 공항들이 아직까지도 제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엄청난 국민들의 세금만을 낭비하고 있는 포퓰리즘의 폐해를 보아 왔다. 그러나 비록 대중 선동 정치인들의 잘못된 발상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는 세종시라 하더라도 그 지역 역시 포퓰리즘

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을 보다 건설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는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만약 세종시 원안대로 행정기관 9부2처2청 이전을 실행할 경우 연간 약 3조~5조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또 남북통일 이후 정부부처 재이전 비용 8조~17조원을 포함할 경우 향후 20년간 100조원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가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공무원 출장비, 정부 부처를 방문하는 민간인의 비용, 정책품질 저하 및 국가 경쟁력 약화에 따른 비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행정 비효율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 11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기술 중심의 경제도시로 바꾸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해당지역 개발이 1부2처의 행정도시가 아니라 교육과학기술 중심의 경제도시로 발전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즉 정부는 5대 자



족도시기능(첨단과학연구 거점, 첨단·녹색산업, 우수대학, 녹색도시, 글로벌 투자유치전략 등)을 마련하여 생산이나 고용과 관련된 산업·상업 부지가 들어서는 땅인 자족용지를 기존안의 6.8%에서 그 세배가 넘는 20.7%로 확대했다. 그 외에도 입주기업에 대해 저렴한 토지공급가격, 세제감면혜택 등 각종 인센티



최창규 교수

최창규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학사), 미국 텍사스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후 현재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지난해 「G20 기획단」 전문위원 (국제금융기구 개혁 분야)을 지낸바 있고 주요 학술 연구서로는 「부동산 가격변동과 상호저축은행의 수익성」 등 다수가 있다.

브를 제공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민간 기업투자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참여정부식의 선동적이고 무책임한 지역개발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지역격차가 매우 크지만 지난 참여정부가 하는 식으로 수도이전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무리하게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넘겨주고 주민·기업·지방자치체가 지역개발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지역 개발 모형이 모색되어야 한다.

놀라움과 슬픔사이...

김 덕 우 / AIS 10학년

방학의 여유로움을 잔뜩 만끽하고 있던 1월 초, 스스로 오랜만에 '열린 마음으로 문화탐방을 가자' 라는 기특한 생각을 하고서는 오랜만에 문화탐방을 신청했다. 뽀짝 탐방의 인상이 너무 강해 항상 탐방에 합류하고 싶었지만 토요일 마다 학교 행사, 레슨 등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이번 토요일도 아니나 다를까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제치고 탐방에 참석했다. 혹시 지난 번 뽀짝 여행 때처럼 어른들만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상관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자카르타 박물관 노트'에서 본 따만미니와 공산당 박물관은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간다는데 무엇이 나를 막겠는가! 직접 가서 그곳을 느끼고 즐겨보자는 생각으로 1월 9일 비록 흐린 날씨였지만 나의 두 번째 문화탐방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인도네시아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자카르타의 관광 명소 아름다운 인도네시아의 작은 공원 '따만 미니' 였다. 입구에는 귀여운 원숭이 캐릭터인 하노만이 반겨주고 있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민속촌 같은 유명한 곳이었지만 나는 아직까지 와본 적이 없어 모든 게 다 흥미로워 보였다. 전체적으로 살짝 어수선한 듯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공원 내부는 나름 운치 있어 보였고 각 지방의 전통 가옥들도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사공경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 따만 미니는 인도네시아의 총 33개의 주 중에서 26개 주를 대표하는 유물과 집 모형들이 있다고 한다. '다양성' '삶과 죽음' '인도네시아인들의 예술과 철학'에 대해 말씀하셨다. 우리는 26개 모두 돌아보지는 못하고 특징적인 몇 가지 가옥만 탐방했었다. 나름 집중해서 비교해 보았다. 문양

과 색채, 가옥의 형태가 각 주마다 달랐다. 수마트라 섬 만해도 동

(리아스섬), 서(미남까바우), 북(바닥, 아제)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에게서 전통형식의 집보다는 물소와 점박이 소의 머리 모형(술라웨시 수마트라관)이 붙어있는 것이 더 흥미로웠고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죽음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사후세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 그래서 시체를 2년간 말리고 장례 후에는 인형을 세우





는 등 많은 의식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과연 내가 과거에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다면 죽을 때 어떤 장례를 치렀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번 문화탐방의 클라이맥스는 전통 가옥들을 다 본 후에 만난 파푸아 다니족의 전통 춤이었다. 조금씩 떨어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환영한다는 춤을 추며 북을 쳐보라고 자신의 북 한 귀통이를 나에게 내밀어 주었고, 전쟁 춤 등을 열정적으로 보여주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춤을 추던 그들의 모습은 앞으로 잊지 못할 거 같다. 원시의 북소리, 태고적의 그 소리.... 나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 같았다.

조금씩 굽어지는 빗줄기에도 따만미니 여행은 계속되었으며 우리는 달팽이 모양으로 생긴 아이맥스 영화관으로 가서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에서 이리안자야까지 드넓은 영토를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35분짜리 영화를 보았다.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각 지역의 특성을 잘 설명해준 영화인 것 같았고, 정말 'Indonesia Indah'였다. 따만 미니를 둘러보면서 느낀 점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다. 다른 민족이 서로 다른 풍습과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라는 커다란 공동체로 변함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한 민족으로 계속 살아온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보기에 정말 경이로워 보였다. (물론 곳곳에서 분쟁이 있다는 설명은 들었지만)

반공 박물관. 야니 장군 및 7명의 장성이 떨어진 곳이자 다른 죄 없는 많은 이들이 이유 없이 희생당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남아있던 일본군들을 마구잡이로 처형한 곳.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귀신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 그런 어두운 배경 때문인지 아니면 날씨 탓이었는지 박물관에 도착하자 이상하게 기분이 우울해졌다. 마치 우리나라의 서대문 형무소를 연상시키는 것 같았다. 바깥 여기저기에 존재하는 그들을 추모하는 것들에 나도 모르게 숙연해졌다. 그리고 희생된 7군인의 시체를 집어넣었다는 우물. 폭이 좁아 우물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색하지만, 우물 바로 옆에 흙이 감싸고 있고 마치 지금이라도 시체들이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깊이 12m에 폭 75cm에 6명(부관 1명)의 인도네시아 별들이 떨어졌었고 몇 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와있다고 생각하자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 간 듯 한 느낌이 들었다. 우물에는 아직도 찢자국이 있었으며 음산한 느낌을 물씬 풍기고 있었다. 그 옆에 있는 공산당원들의 숙소와 7명의 장성을 끌고 온 트럭은 그 음산함을 더했다. 공산당들이 잔인하게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는 장면이 실물 크기로 우물 옆에 재현되어 있었다. 화려하게 꾸며진 바깥과는 달리 박물관 안은 살짝 어두웠다. 그런 어두운 내부 때문이었는지 박물관의 전시되어있는 것들은 그 때 당시의 참혹함을 더 잘 보여주는 듯했다. 곳곳에 공산당원들이 반란을 일으킨 모습, 여기저기 임금인상을 외치며 싸우는 모습,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그리고 군인 대장 야니 장군 사살 역시 잘 묘사되어 있었다. 이처럼 전체적인 공산당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었다. 공산당의 흥망성쇠를 잘 묘사한 본관 뒤에는 또 다른 작은 전시실들이 있었고 그 곳에는 희생된 7명의 군인의 소지품과 입고 있던 옷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피 묻은 옷들, 생전 사진들 주인을 잃은 그 물건들은 오늘도 그 곳에서 돌아오지 못할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희생된 장군 딸(나스더온 장군의 딸 아데이르마)의 사진과 소지품도 있었다. 4~5살 정도로 보였고 소지품 중에는 한국 복주머니가 있었다. 이렇게 어린 예쁜 아이가 그렇게 어이없게 죽다니... 그 복주머니는

북한 사람에게 받았나 (그 당시에는 남한 보다 북한과 더 가까웠다고 했다) 등 북주머니를 중심으로 나는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생각을 했다. 그런데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공이라는 이름하에 영문도 모르는 채 억울하게 죽어갔다고 했다. 박물관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길에도 나는 왠지 모를 슬픔과 우울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따만 미니는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관광 명소이고 언제나 수학여행 온 학생들로 붐빈다고 한다. 반공 박물관은 이 나라의 어두운 현대사이다. 나는 오늘 그 곳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이로운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보았다. 2억여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대국 인도네시아의 축소판인 따만 미니에서는 인도네시아란 나라의 다양한 민족성과 특징에 놀랐고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어두운 과거를 담고 있는 반공 박물관에서는 역사의 한 부분이 된 참혹한 죽음 때문에 슬픔을 느꼈다. -역사 앞에서는 인간은 그저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 모든 것은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 - 이번 여행에서 내가 배운 교훈인 것 같다. 또 이념에 희생되지 않는 우리 세대는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혼자여도 좋고 가족끼리여도 좋다. 따만 미니에 가서 각 지역의 전통 가옥을 구경하는 것도 좋고 많은 박물관(17개의 박물관이 있음)이나 새공원에 가는 것도 좋다. 따만미니 앞에 있는 대통령 박물관에 가도 좋고 반공 박물관에 가도 좋다. 인도네시아에도 구경할 것 많고 체험할 것이 많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게 되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알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다른 나라 문화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문화탐방과 함께 떠나보자!



한인회 인니문화연구회 탐방 일정

174회 탐방

일시: 2월 25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9시

장소: 오아시스 레스토랑 (021) 315-0646

Jl. Raden Saleh Raya 47

175회, 176회 탐방

일시: 2월 28일(일) 오전 7시 - 3월 1일 (월) 오후 6시

장소: 반둥(아시아아프리카박물관, 수나르노 갤러리, 앙골롱 외)

*주일 예배는 반둥 한인교회에서 드립니다.

연락처: 신유희 0818-708-228 plentyhoki@yahoo.co.kr

사공경 0816-190-9976 sagong@hotmail.com

문화회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인사회의 문화활동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개관한 한인회 '문화회관'은 작지만 쾌적한 공간에 교민들께서 보내주신 양서들이 있고, 차 한잔의 여유를 음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각 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우측 도서관 이용안내 참조

[휴게실]

TV시청, 신문, 잡지, 도서 열람 가능

[소규모 모임]

각 문화단체 및 세미나, 동우회 등 소규모 모임 장소대여 가능



한인회 도서관 이용안내

★ 이용 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 이용 대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 한인회원 가입은 한인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 대여 방법

가. 회원증 사본 제출

나. 보증금 Rp.200.000 (요청 시 환불가능)

다. 대여 권수 및 기간
- 도서 2권 / 기간 7일

라. 대여 기간 연장
-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기가 가능 합니다
- 전화 및 직접 방문

마. 반납 연체 및 분실 시
- 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당 Rp.1000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바하사



글: 허영순 번역작가(KBS WORLD INDONESIA/OKTN)

자료제공: KBS WORLD INDONESIA/KORINDO.

점점 많은 한국 분들이 인도네시아에 오십니다. 혹자는 인도네시아가 지겹다고 하면서도 계속 사시는 분들이 있고, 혹자는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얼마 전 지진으로 폐허가 된 아이티를 보면서, 신음과 통곡 탄식이 널브러진 아비규환의 현장을 보고, 한없이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지만, 2010년 새해를 내 집에서 편안하게 맞이하고 계획 할 수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이 겨울 비로 젖었다는 기상청 예보를 들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상 3-9도로 한파가 끝난듯한 포근한 날씨라 그런지 길거리 사람들 표정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겨울이 없는 나라에 한해... 두 해... 이렇게 살다 보니 새해가 밝아 올 때 느꼈던,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그리워 지기도 합니다.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해넘이를 보며 새 봄 소식을 기다리며 새해 계획을 짜던 추억...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선 12월 31일 제야의 종소리 대신 뿡뿡 소리를 내를 피리를 불며 길거리 행진을 합니다. 잡귀를 물리치기 위함 이라고 하는데요 조금은 생소 하지만, 이젠 이 문화에 동화되어 가듯, 저도 금년 송년에는 현지 친구들과 피리를 불며 보냈습니다.

새해 첫날, 첫 달 금연, 절주, 운동, 공부 등의 계획을 짜지만 실패 하셨던 분 “이전 것은 연습이었어” 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진짜 시작 이다” 라고 생각하고 꼭 성공 하시길 바랍니다.

겨울의 고된 추위를 견디고 꽃 봉오리를 피우는 나무처럼, 꾀꾀하게 뿌리로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처럼... 새로운 시작도, 이전 것의 지킴도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희망차고 행복한 2010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차차차(Mari berjoget)

욕심을 버리면 세상에 미워 할 것도 복수할 것도 없을 텐데... 새로운 극중 인물 장이사는 과거상처로 나온 모에게 복수 할 생각으로 결혼 때문에 빠뜨어진 마음으로 상처를 안고 있는 이철에게 접근해 유니콘이 회사채를 발행 하도록 유도한 후 모두 사들이려 하자 비서가 분산 투자하는 게 좋을 거라 충고 합니다.

이에 장이사는



Kau tak bisa lagi *membujukku* kali ini.

Keputusanku sudah *bulat*.

이번 일은 날 설득 할 수 없을 거예요

난 이미 결정 했으니까.

Membujuk : 좋은(달콤한) 말로 상대방이 어떠한 사실이 옳다고 믿게 만듦. 회유하다, 구슬리고 달래다. 부추기다 라는 뜻의 단어 입니다.

동의 어로는 **Rayu**와 **Goda**가 있습니다.

Bujuk은 근거를 들어 믿도록 유혹하는 설득의 의미를 갖고 **Rayu**는 이성간의 유혹의 의미가 강하며 감정적인

것에 호소 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비하인드** 해 줄 때, 위로 해 줄 때 또는 남을 부추길 때 사용합니다.(두 단어 모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유혹하거나 설득 시킬 경우 사용 하는 단어 입니다.)

Goda는 분명한 목적 없이 행위나 말로 상대방을 유혹하거나 재미를 위해 놀릴 때 사용 합니다.

예)

Dia *membujuk* klient agar diterima proposal nya.

그의 제안서가 수락 되도록 고객을 설득 했다.

Pemuda itu berusaha *merayu* gadis manis yang duduk di dekatnya.

그 젊은이는 가까이에 앉은 참한 아가씨를 유혹해 보려고 노력 했다.

Kakakku sering *menggodai* di depan orang lain.

우리 오빠는 종종 다른 사람 앞에서 날 놀린다.

Tip)

Layu 와 Rayu

Layu는 신선하지 않은 상태의 꽃이나 식물, 과일이 시들었다고 표현 할 때 사용 하는 단어로 발음이 비슷 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 합니다.

사람이 피곤 하거나 지친 상태를 표현 할 때는

Layu 대신 **Cepak**, **letih-lesu**, **lelah** 등을 사용 합니다.

예) Bunga di meja **layu** karena sudah tiga hari tidak diganti airnya.

3일 동안 물을 갈아 주지 않아 책상 위의 꽃이 시들었다

Capek 피곤한

예) Saya sudah **capek** seharian kerja di Kantor.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했더니 피곤하다.

Letih- lesu/ Lelah: 기진맥진한/ 피곤한, 지친.

Badanku **letih-lesu** sehingga tidak bisa ikut makan malam bersama.

몸에 진이 다 빠져서 저녁 식사에 동석 하지 못하겠다.

Lemah: 연약한, (마음등이)허약한.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거나 어떠한 일에 더 이상 대응할 힘이 없을 때.

Hatiku **lemah** jadi mudah menangis bila mendengar perkataan yang kasar.

마음이 약해서(허해지다) 인지 거칠은 말에 쉽게 운다.

Muak: 넋더리가 난다. **Lemah** 보다 조금 더 강한 부정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떠한 일이 꼴도 보기 싫거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싫음을 나타냅니다.

Saya **muak** mendengar keluhan dia.

그 불평 불만에 넋더리가 난다.

Bulat 은 원형, 원 이라는 뜻으로도 사용 되지만 결심, 결의 등 단호히 어떤 것을 결정 했음을 뜻합니다. 무언가를 결정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의 단어로는 결정, 결심의 **keputusan, ketentuan** 있으며 문장에 따라 다르게 사용 됩니다.

Keputusan의 어근은 putus로 결정 외에도 사람과의 관계나 물체의 연결 고리가 끊어짐 즉 헤어짐을 나타내고 계약 따위의 관계가 종료됨을 나타내며 **putus asa**(**asa** 희망) 절망적인, 낙담 하다. ~와 같이 잃은 이란 뜻을 갖은 속어로 사용됩니다.

예) **Keputusan** sudah diambil saat rapat kemarin.

어제 회의에서 이미 결정났다(되었다)

Ketentuan의 어근은 **tentu**로 결정이나 결심 외에도 어떠한 약정, 계약, 조항들을 뜻하며, **Tentu saja**(물론이죠) 나 **belum tentu**(불확실한) 확실하거나, 명확하다라는 뜻을 갖는 속어로 사용 하기도합니다.

예) Ada beberapa **ketentuan** yang harus dipatuhi sebelum menandatangani kontrak.

몇몇 조항들은 계약에 서명 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준수 해야 한다)

Tentu saja mereka akan menikah.

그들은 당연히 결혼할 것이다(그들이 결혼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Dia belum **tentu** akan menghadiri rapat umum.

그가 총회에 참석 할지 여부는 불 분명하다.



도자기 김치용기가 들려주는 맛있는 소리

100% 무연유약의 친환경 김치용기가 플라스틱 김치통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김치독김치 맛을 되살립니다

- 1 깊은 맛** 세계 명품도자기의 그 품질 그대로입니다
독일VILLEROY&BOCH, 미국 MIKASA, 영국MARKS&SPENCER, JOHN LEWIS, 스칸디나비아 ILLALA, 이탈리아 CISLAGHI, LIVELLARA, 일본 NARUMI 등을 생산 공급하는 전한국이 그 품질 그대로 세계 최대의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 2 건강한 맛**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 걱정이 없습니다
Pb(납)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100%무연유약을 사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캘리포니아 Prop.65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친환경 도자기입니다.
- 3 살아있는 맛** 원적외선이 맛을 신선하게 지켜줍니다
최첨단 신소재와 분차이나의 주원료인 Bone Ash 등 최고급 천연원료만을 사용, 원적외선의 기가 방출되어 김치의 신선도를 4개월 지켜줍니다.
- 4 변함없는 맛** 일반도자기 3배 강도로 단단합니다
1250 ℃ 이상 고온에서 3번 구워낸 세계 최초의 신소재 초강자기로 일반도자기 3배의 강도를 지녀 잘 깨지지 않고 냄새나 색이 배지 않습니다.

밀폐김치용기 밀폐김치용기 사이즈(단위: cm) : 5.7L-22x21x22, 3.6L-22x21x14, 2.7L-22x21x11, 2.3L-20x14x14



브리즈 [오렌지] 5.7L/3.6L/2.7L/2.3L



밀로즈 5.7L/3.6L/2.7L/2.3L



블레이드 피피 5.7L/3.6L/2.7L/2.3L

밀폐찬기



카멜리아 밀폐찬기(원형, 직사각, 정사각)

Showroom

Grand Indonesia.Lt2
Tel:021)23580601

Pondok Indah Mall.Lt3
Tel:021)75920615



Hankook Ceramic Indonesia

ZIEN (주)젠한국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중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유촌강 / 소설가, 카피라이터

막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가다보면 꼭 안타사리를 거친다. 그곳은 상습 정체 구간이고, 그곳을 간신히 통과하면 또 다시 2망 티무르 쪽으로 향하는 곳에서 정체구간을 만난다. 두 번의 정체 구간을 어김없이 거친 후 유치원에 도착한다. 단 하루도 예외는 없다.

그중 흥미를 끄는 곳은 안타사리 부근이다. 이곳은 이제 눈에 익어서 다음 풍경이 어떤 것인지 활동사진처럼 머리에 떠오른다.

질은 보라색 나팔꽃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피어 있는 담장, 한국에선 결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행운목을 울타리로 삼은 노변의 가난한 집 풍경, 그 안에는 세탁기가 없는지 그냥 짜서 널 빨래가 물을 푹푹 떨어뜨리고 있다. 참 부지런도 하다. 누군지 모르지만 아침부터 빨래를 해치우다니. 그 빨랫줄을 놀이기구 삼아서 애들이 뛰어논다. 왜 그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 걸까 라고 질문하면 내가 바보 같은 건가?

그들의 풍경은 내가 기억하는 70년대 언저리에 살던 한국인들의 풍경과 닮았다. 물을 펌프로 정신없이 올려

야물이 나오고, 세멘을 바른 빨래터 주변엔 늘 이곳처럼 하수구가 있었다. 그곳엔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 물이 흐르고 과자봉지들이 둥둥 떠 있었다.

안타사리 정체구간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눈에 익은 풍경은 빨간 줄이 들어간 노란 셔츠를 입고 과자를 파는 청년들이다. 그들은 Onde-Onde라는 과자를 판다. 삼각형 상자가 좀 특이한데, 사는 사람은 못 봤다. 그래도 그들은 아침이든 점심이든 바구니에 과자를 넣어가지고 돌아다닌다.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긴 한가보다. 그들이 문을 닫는 걸 보지 못했으니 말이다.

대체 얼마나 맛이 있기에 도로변도 아니고 도로 가운데까지 뛰어들어 배회하면서 파는 걸까? 그러나 정작 그들은 과자를 파는 일엔 열성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저 과자를 흔들면서 걸어 다닐 뿐이다. 나는 그런 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파는 만큼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월급제로 만나보다고.

그들이 지나가면 다음엔 아기를 얹은 똥똥한 여자가 나타난다. 그녀는 유난히 까만 얼굴을 번뜩이며 아기가 자든 울던 통 신경 쓰지도 않은 눈치다. 그저 몸의 일부

취급을 하는 것 같다. 그 떡약별 아래서 아이가 눈을 뜨고 버둥거리든, 잠을 자든 그녀의 소관이 아니라는 표정이다.

그녀는 구걸을 한다. 말없이 딸랑이만 흔들면서 차창 안을 들여다본다. 처량한 눈이 아니라 ‘줄래 안 줄래?’ 하는 표정으로 말이다. 가슴 언저리에 짐처럼 달린 아이는 더위에 지쳤는지 입을 반쯤 벌린 채 잠을 잔다. 한 숨이 나온다. 자꾸 쥐벼룩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생각나 애써 무시했다. 그랬더니 그녀가 정체가구간에서 차가 멈춰 있는 동안 계속 옆에 서서 딸랑이를 흔들고 있다. 신호등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도 애써 외면을 했더니 그녀가 화를 낸다. 욕이라도 하는 듯한 눈빛과 입모양으로 차 안의 내게 뭐라고 한다. 그녀는 다음 차로 향해 가면서도 얼굴은 내가 탄 차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번득이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계속 중얼거렸다.

만약 그녀가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는 연기라도 했다면 내가 그녀에게 다시 돈을 줬을까? 내내 짹짹했다. 그녀는 며칠 전 내가 그녀에게 돈을 준 건 기억도 하지 못한다. 분명 나는 그녀에게 창문을 열고 돈을 줬는데 그때도 그녀는 아이를 무성의 하게 매단채로 구걸을 하고 있었다. 아마도 안타사리 부근이 그녀의 구역인가보다.

조금 더 지나면 두 손이 뒤틀린 소녀가 구걸을 한다. 늘 구슬픈 표정으로 차창가를 배회하고 도로를 오가는 그녀는 정말 슬퍼 보인다. 그러나 살펴보니 정작 그녀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얼마 후 나는 그 이유를 알았다. 그날도 나는 안타사리 주변을 지나고 있었다. onde onde 과자집과 그 옆의 갤럭시 앤틱 상점을 지나고 있었다. 차들은 의외로 막히지 않고 잘 빠졌다. 그날은 아이 엄마도 없었고, 구걸하는 소

녀도 없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시선을 돌리는데 나는 그 구걸하는 소녀를 한 노점상 옆에서 발견했다.

무심코 눈을 돌린 어느 노점 옆 모퉁이에 척 걸터앉은 그녀는 정신없이 뭔가를 먹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무척 빨랐다. 평소의 구슬픈 표정대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먹다가 뱉어버리고, 주변을 노려봤다. 그 눈빛을 ‘원망의 눈’이라고 표현하면 심할까? 아무튼 나는 그 순간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도대체 이 나라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걸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왜 이 나라는 특히 중간이 없을까?

얼마 전 구두를 사러갔었다. 적당한 굽을 사려고 갔었는데 사지 못했다. 아주 높거나 아니면 방바닥을 땅에 붙이고 다니는 느낌이 들 정도의 낮은 신발이 있을 뿐이었다. 이곳은 삶도 대체적으로 그러한 것 같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사회 구성원 중의 일부가 분노를 품고 있다면 언젠가 사회의 용이가 돼서 분명 튀어나올 터인데 정작 이곳사람들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나는 종종 고민한다. 욕을 하고 돌아서가던 아이 엄마에게 돈을 또다시 쥐야할지, 우울하면서 구슬픈 표정으로 배회하다가 돌아서면 번득이는 눈빛으로 허공을 노려보는 소녀에게 돈을 쥐야할지를.

새벽부터 저녁까지 매일 세 번의 경배를 받으시는 알리는 도대체 뭘 하시는지 모르겠다. 탈레반이랑 빈 라덴 때문에 바쁘신가? 암튼 이곳 사람들의 인생살이에 중간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게 나의 바람이다. 그러나 어쩐지 매일 안타사리를 거쳐서 가지만 내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계속 그들을 볼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노선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일용직 근로자 활용

얼마 전의 일이다.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S社에서 파업이 발생했는데 내용을 파악한 결과 그간 필자가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 계약직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고용에 불안을 느낀 계약직 사원 및 퇴직사원들이 주동이 되어 회사가 모르는 사이 노조를 설립하고 그 상급단체와 연계하여 계약직 사원의 다수를 정규 사원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었다. 회사는 생산이 중단되고 납품도 보장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회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정리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어 버렸다. 결국 회사는 여러 손해(일정 인원의 정규직 전환 및 노조 인정)를 감수하며 상황을 종료하긴 하였으나 파업으로 인한 조직분위기 와해, 노동조합 설립으로 인한 관리력 손실, 문제인원에 대한 해결 과제, 협력업체로서의 대기업에 대한 이미지 실추 등 수 많은 숙제를 남기게 되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 진다”는 속담처럼 어려운 과정 해결을 통해 관리력을 더 탄탄하게 하고 향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또 다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손실이 이미 발생해 있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 인사노무 관리는 사전 꼼꼼하게 체크하고 정비하여 관리해야만

위와 같은 갑작스런 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다고 본다. 필자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사원들에게 있어 고용 불안 만큼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사유로 인해 사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파업, 노조 설립 등을 추진하는 강한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작은 불씨가 나중에 큰불이 되어 회사를 위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 체계적 인사/노무관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회사도 스스로의 관리력에 자만하지 말고 항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감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사원들과 소통함으로써 화합적 노사관계의 초석을 다지고 회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필자가 각종 인사/노무 관련 세미나 참석시 마다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중의 하나인 “일용직 근로자 활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활용은 계약직, 외주인력(O/S)과 더불어 회사 인력운영의 유연성 및 인건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비정규 활용의 Option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회사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였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I. 일용직 근로자 관련 법규:

- A: 일용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노동부 장관령 PER-06/MEN/1985
- B: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시행에 관한 노동부 장관령 KEP.100/MEN/2004
- C: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부 장관령 PER-01/MEN/1999
- D: `03년 근로기준법 13호

1. 일용직 근로자 정의(A: 제1조 a항):

사용자를 위해 시간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는 특정업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일일 출근 일수에 근거하여 급여가 지급됨.

2. 일용직 근로자 활용 가능 범위(A: 제2조):

- 1)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 및 형태가 일용직을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기적, 고정적, 지속적 업무에는 일용직을 고용할 수 없다.
- 2) 상기 1)항의 업무 성격 및 형태가 일용직 활용 가능한 경우:
 - a.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종결될 수 있는 업무.
 - b. 월 근로일수가 2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반 업무 시간에 국한되지 않음.
 - c. 파종, 수확, 도정 등 특정 계절에 따른 업무 수행.
 - d. 비고정적인 선적 및 하역 작업.

3. 정규직 전환(A: 제4조):

일용직 근로자를 월 21일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연속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방치영

방치영씨는 인니국립이슬람대학교 국립 UGM 대학원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96년 LG 전자 인사팀에 입사 후, LG Electronics Display Devices Indonesia와 LG, Philips Displays Indonesia에서 인사/노무/연수 총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

인도네시아 신노동법(발행 04년 8월)

- 03년 노동법 13호 및 시행령

- 04년 산업분쟁 조정법

- 기타 주요 노동법

전화 : +62-21-898-9696

핸드폰 : +62-815-1902-4000

이메일 : agung@lpdisplays.com

4. 일용직 급여(C: 제15조):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아래 기준에 의거 출근 일수 만큼 지급된다.

- 1) 주6일 근무제 회사의 경우 급여의 25분의 1.
- 2) 주5일 근무제 회사의 경우 급여의 21분의 1.

5. JAMSOSTEK 가입 의무(D: 제99조 (1)항):

1) 근거:

-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99조 (1)항.

- `93년 인도네시아 정부 법령 제2조 (3)항.

2) 내용: 모든 근로자 및 가족은 JAMSOSTEK에 대한 권한이 있음.

6. 일용직 근로자 고용 신고 의무(B: 제12조):

- 1)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들과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2) 상기 1)항의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근로자 명단의 형태를 취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a. 회사 또는 사용자의 성명/주소
 - b. 근로자 성명/주소
 - c. 업무의 종류
 - d. 급여 또는 보수
- 3) 상기 2)항의 근로자 명단은 근로자 고용 후 최소7일 이내에 노동관계기관에 통보한다.

II. 합리적 일용직 관리방안:

위에 언급한 법적 기준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용직의 활용 역시 엄격한 법적 잣대로 보자면 그 활용이 그리 수월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용할 수 있는 업무의 형태가 계절적, 한시적 업무로 한정적이며 사용가능 기간 역시 월 20일 이하 및 3개월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JAMSOSTEK

에도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위와 같은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일용직을 활용하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문제가 이슈화 되어 어려움에 처하기 전까지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일용직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보다 합리적 인력운영을 위해 우선 회사의 업무형태 및 전반적 인력운영의 방향을 수립하고 그 큰 틀 안에서 일용직의 활용이 바람직한지, 외주인력 활용 등 다른 대안은 없는지, 사용한다면 어떤 업무에 활용할 것인지, 얼마 동안 쓸 것인지, 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임금은 얼마나 줄 것인지 등을 고민하여 일용직의 사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문제 소지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계약서 작성, 노동부 신고 및 협력 관계 유지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강구 및 일용직 허용 기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한 일용직 개별 사원에 대한 고용기간 관리 등 운영의 묘를 아울러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원들에게 있어 고용불안은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와 대처가 미흡했을 때 회사에 대한 부정적 반발감이 음성적으로 규합하여 회사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도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광물 내수공급 우선 의무

변호사·변리사 이승민 (YSM & PARTNERS)
yisngim@centrin.net.id

광업사업자가 생산한 광물을 국내 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의무화한 인도네시아의 신광업법이 2009년 1월 12일 발효 이후 광업사업자들이 궁급하게 기다리던 광물 내수공급 우선의무(Domestic Market Obligation/DMO) 규정이 동자부 장관령으로 발효됐다. DMO에 관한 장관령의 발효로 탄광사업자는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국제 유가와 연계가 되어 있는 석탄의 가격을 내수 석탄에 대해서는 내수 물량도 확보하고 내수 가격도 확실하게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가 보이며, 매년 탄광화사의 생산량을 콘트롤하고, 석탄을 사용하는 업체들의 사용량도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급과 수요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내 석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석탄을 사용하는 업체에게 연간 사용 예정량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내 석탄 사용 예상량을 계산하여 석탄 생산량을 정하고 3개월 마다 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물 광업사업자 및 탄광사업자가 DMO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시에는 차년도 생산 허가량을 최고 50%까지 감량 처벌하며 계속 위반 시에는 차차년도에 추가로 최고 50%까지 감량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광물 및 석탄사용자에게도 위반 시에는 차년도 광물 및 석탄

배정량을 최고 50%까지 감량 배정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소 DMO 이상 이행한 실적을 타사에게 양도를 허용하고 있어서 내수 전문 업체는 내수에만 전념할 수 있고 수출 전문업체는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제도로 평가되며 발전 케과 증가로 석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석탄 내수시장 안정이 기대된다.

1. 내수공급 우선의무

- 1.1. 광물 광산업체 및 탄광업체는 국가적인 이익 차원에서 광물(금속 광물 및 비금 속 광물) 및 석탄을 국내 내수 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의무가 있으며 공급하는 방법은 광물 및 석탄을 광물 사용업체 및 석탄 사용업체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한다.
- 1.2. 최소 내수 판매비율은 동자부장관이 정한다.
- 1.3. 내수용 광물 사용은 원료 및 직접 사용재로, 석탄은 원료 혹은 연료용 사용으로 구분한다.
- 1.4. 내수용 광물의 원료로 사용은 제련, 정제, 비금속 광물 가공 및 석재 사용으로 구분하며, 광물 직접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사용은 가공산업 분야 사용 및 건축업 분야 사용으로 구분한다.

15. 석탄을 원료로 사용은 석탄 브리켓 제조 사용, 금속가공 분야 사용, 석탄액화 분야 사용, 석탄 기화 분야 사용 및 고품질 석탄화 분야 사용으로 구분하며, 석탄을 연료로 사용은 발전 분야, 산업 분야, 소규모 산업 분야, 가정용 석탄 사용으로 구분한다.
16. 광물 공산업체 및 탄광업체가 최소 내수공급비율을 달성 시에 광물 및 석탄을 수출할 수 있다.



17. 동자부 장관은 광물 광업업체 및 탄광업체로부터 연간 사업계획서를, 광물 사용업체 및 석탄 사용업체로부터 연간 광물 및 석탄 사용 계획서를 받아 연간 DMO를 결정한다. 광물 사용업체 및 석탄 사용업체는 다음 해 연간 광물 및 석탄 사용 계획서를 늦어도 전년도 3월에 제출해야 한다.
18. 광물, 석탄 및 지열 광업청장("광업청장")은 광물 및 석탄 내수량을 조사해서 최소 DMO 비율과 내수 사용자 명단 및 익년 예상 수요량을 전년 6월까지 제출해야 하며 동자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상황 변동으로 DMO 비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자부 장관이 익년 DMO 비율을 전년 12월에 조정할 수 있다.

2. 광물 및 석탄 가격

광물 및 석탄 내수 가격은 12개월 이내 양도하는 단기거래 혹은 그 이상의 장기 거래 모두 별도 동자부장관령으로 정하는 가이드 가격을 따라야 한다.

3. 수입지출 포함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 3.1. 광물 광업사업자 및 탄광 사업자는 연간 수입지출 계획, 최소 DMO 비율, 생산 계획이 포함된 익년의

연간 사업계획서를 광업사업허가서 발급관(시장, 군수, 주지사, 광업청장/동자부장관)에게 늦어도 전년 11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연간 사업계획서에 최소 DMO 비율을 포함시키지 않은 회사는 늦어도 1(일)개월 이내에 최소 DMO 비율을 포함시켜 연간 사업계획서를 수정해야 한다.

- 3.2. 시장, 군수, 주지사 혹은 광업청장/동자부장관은 광물 광업사업자가 및 탄광사업자가 제출한 연간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실정법에 따라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 3.3. 광물 광업사업자 및 탄광사업자는 DMO 이행을 위해 광물 및 석탄 매매업체 해당 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광물 및 석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3.4. 상기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광물 및 석탄 매매업체의 조건은 반드시 동자부장관, 주지사, 시장 혹은 군수로부터 수송 및 판매에 관한 특별 생산 활동 광업사업허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3.5. 동자부장관/광업청장, 주지사, 시장 혹은 군수에게 제출하는 연간 사업계획서 상기 광물 및 석탄 매매계약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4. DMO 이행 의무

- 4.1. 광물 광업사업자 및 탄광사업자는 매년 DMO를 이행해야 하며, DMO를 이행 하지 못한 광물 광업사업자 및 석탄 사업자는 불이행 보고서를 동자부장관/광업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광물 및 석탄 사용업체에게 발송해야 한다.
- 4.2. DMO를 이행한 광물 광업사업자 및 탄광사업자는 DMO 이행 실적을 3개마다 회씩, 즉,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에 동자부장관/광업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4.3. 1/4분기 해당 최소 DMO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1/4분기에 이행하지 못한 DMO 만큼 2/4분기에 가산되며, 2/4분기의 셋째 달까지 최소 DMO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3/4분기에 최소 DMO 비율이 가산되며 3/4분기 에도 최소 DMO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4/4분기에 가산된다.
- 4.4. 광물 및 석탄 사용업자는 동자부장관이 정한 DMO 결정서에 나와 있는 광물 및 석탄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며 매입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늦어도 한 달 전에 동자부장관/광업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4.5. 광물 및 석탄 사용업자가 동자부장관이 정한 DMO 결정서에 나와 있는 광물 및 석탄을 매입해서 수출하는 것을 엄금하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5. DMO 이행 실적 양도 가능

- 5.1. 생산업체 자체, 다른 생산업체 와 광물 및 석탄 매매업체의 내수 판매 실적으로 최소 DMO를 이행할 수 있다.
- 5.2. 최소 DMO를 초과 이행한 업체는 초과된 양을 타 업체에게 양도할 수 있다.
- 5.3. 가격은 해당 월의 정부의 가이드 가격 중 최고 가격으로 하며 거래 가격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동자부 장관을 통하여 해결한다.

- 5.4. 광물 혹은 석탄 사용업체가 이미 약정된 DMO 물량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광물 혹은 석탄생산업체는 제삼자에게 DMO 물량을 판매할 수 있다. 이리 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자부장관/광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5.5. 동자부장관/광업청장의 승인을 얻고 제삼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DMO 이행으로 인정되나 동자부장관/광업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제삼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DMO 이행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6. DMO 이행 감독

동자부장관이 DMO 이행을 감독하고 광물 및 석탄 생산업체들의 DMO 이행 보고 내용을 이베를이전하여 최소 DMO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7. 생산량 혹은 배정량 감량 행정 처벌

- 7.1. DMO를 이행하지 않은 광물 광업사업자 및 탄광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벌권은 동자부장관, 주지사, 시장 혹은 군수에게 있으며, 광물 및 석탄 사용업체에 대한 행정 처벌권은 동자부장관에게 있다.
- 7.2. 상기 "4.1"항 혹은 "4.2"항을 위반한 광물 광업사업자 및 탄광사업자에게는 최장 1개월 유효 서면 경고를 하며 최장 3회 경고 후에 차년도 광물 및 석탄 생산 허가량을 최고 50%까지 감량 처벌한다.
- 7.3. 상기 "4.4."항을 위반한 광물 및 석탄 사용자에게는 최장 1개월 유효 서면 경고를 하며 최장 3회 경고 후에 차년도 광물 및 석탄 배정량을 최고 50%까지 감량 처벌한다.
- 7.4. 차년도에도 위반 시에는 광물 광업사업자 및 탄광사업자의 차년도 생산 허가 량 추가로 최고 50%까지 감량 처벌하며, 광물 및 석탄사용자에게는 차년도 광물 및 석탄 배정량을 추가로 최고 50%까지 감량 배정 처벌한다.



김은미 편집위원의 추천 도서

나의 이슬람

이 책은 '이슬람'에 관한 책이라기 보다는 인도네시아에 사는 율리아 수리아쿠수마의 에세이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회학자, 여성학자로 살아가고 있는 율리아 수리아쿠수마는 가부장 사회에서 사는 중산층의 여성 지식인이다.

또한 이슬람을 모태 신앙으로 갖고 있으면서 상당 기간 서구에서 살며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여러 겹의 정체성 덕에 이슬람 사회 안에서 외부로 향해, 또 외부의 시선으로 이슬람 내부의 문제를 해석하고자 하는 저널리스트이다.

세계에서 이슬람 신자가 가장 많은 나라.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 대국인 나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뽐내지만 인구의 절반이 빈민인 나라.

1만 7천 개의 작은 섬들과 다섯 개의 거대한 섬으로 이뤄진, 세상에서 가장 큰 군도(群島)의 나라.

천혜의 자연과 푸르고 비옥한 땅을 가졌으나 오염과 상처로 가득한 나라.

인구 2억 5천만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억 7천만 명이 전체 국토 면적의 10퍼센트도 안 되는 섬 하나에 몰려 복잡하는 나라.

서로 다른 250여 언어를 사용하는 300여 민족이 모여 사는 나라.

제1대 대통령인 수카르노를 쿠데타로 밀어내고 32년간 독재정권을 이끌었던 수하르토,

서구의 원조와 지원에 힘입어 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부정부패와 인권유린이 더 없이 심각했고 민주화는 오히려 뒷걸음 쳤던 인도네시아,

독재정권내에서도 엄격하게 분리되었던 정치와 종교, 민주화와 더불어 더욱 강력해진 보수이슬람 세력,

9.11 테러 이후 아프간 등지에서 몰려드는 과격 단체 그리고 중동의 무장테러 단체 탈레반,

종교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여 성차별과 탄압을 일삼는 극단주의 이슬람들,

또 한편으론 그런 이슬람에 대한 서방들의 오만한 왜곡 등에 관해 툭툭 튀는 필체로 맛깔나게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저자의 이야기 한 꼭지마다 그 배경이 된 역사, 정치, 문화적 해설이 덧붙여져 있어 이해하기도 아주 쉽다.

우리가 오랜시간 몸 담고 있지만 항상 낯설기만 한 인도네시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한다.





의형제

분단을 다루면서도 이데올로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의 문제들을 활용해 호소력 짙은 이야기로 완성했다는 점은 꽤 고무적이다. <쉬리>나 <공동경비구역 JSA>가 분단의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빚어지는 거시적인 비극을 선보였다면, <의형제>는 개인의 미시적 영역을 섬세하게 파고들며 보편타당한 교훈을 전하는 식이다.

두 남자의 관계가 변화할 때마다 영화는 스릴러, 액션, 코미디, 휴먼 드라마 등을 자유자재로 오간다. <영화는 영화다>로 극찬 받았던 장훈 감독은 다양한 장르적 재미와 긴장을 영민하게 유지하는 기대 이상의 균형 감각을 보여준다. 그 '균형'의 중심에는 두말할 필요 없는 배우 송강호가 존재한다. 기민하면서도 능청맞고, 계산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매력을 잃지 않는 송강호는 이한규를 통해 희로애락의 충위를 알뜰하게 건드린다.

들어는 봤니? 모건부부

미국 언론도 그러했듯 영화의 제목을 패러디해 <들어는 봤니? 모건부부>의 감상을 전하자면 '들어는 봤으니 됐고!' 정도일까. 마크 로렌스 감독의 전작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을 재밌게 본 사람이라면 이 영화에 적잖이 실망할 테고, 전작을 보지 못한 이라면 지나치게 착한 이 영화가 싱거울지도 모르겠다.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면서 외딴곳에서 함께 지내게 되고, 서로 의지하게 되고, 결국 마음을 열고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는 공식. 영화의 큰 그림이 단순하고 선명한 건 좋다. 그런데 그 공식을 절묘하게 만들어주는 변수들까지 뺀다면 재미없다. 뻗속까지 뉴욕커인 모건 부부가 수시로 야생 곰이 출몰하는 시골에서 생활하며 겪는 소동은 귀엽지만 식상하다. 곰 스프레이를 가지고 노는 일,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장총을 쏘는 일, 장작을 패는 일로 끌어낼 수 있는 재미에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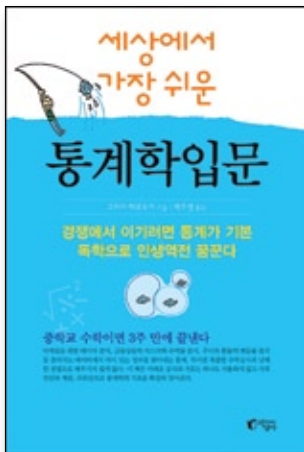


행복의 조건 - 하버드대학교 인생성장보고서

저자 조지 베일런트 | 역자 이덕남 | 감수 이시형 | 출판사 프리티어

수십 년 생애가 촘촘히 그려나가는 인생과 행복의 조감도. 70여 년에 걸쳐 추적한 삶의 지혜를 한 권으로 총결산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도 법칙이 있을까?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은 1930년대 말에 하버드에 입학한 2학년생 268명의 삶과 서민 남성 456명, 그리고 여성 천재 90명을 72년간 추적하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다. 건강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전향적 연구로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하버드대학교 성인발달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 책은 과학적 데이터를 뛰어넘는 극적인 기록들과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시적 깨달음을 전해준다. 노년에 이른 사람들의 생애를 더 들어가면서, 성공적인 노화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혀낸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통계학입문

저자 고지마 히로유키 | 역자 박주영 | 출판사 지상사

비즈니스맨을 위한 3주 완성 통계학 입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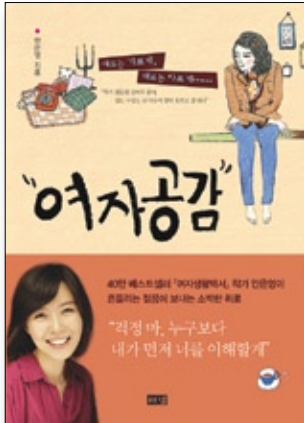
통계학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부분인 검정과 구간추정을 쉽고 재미있게 다룬 통계학 입문서. 이 책에서는 어려운 공식과 기호 대신 사칙연산과 제곱, 루트만을 사용하며, 통계학을 이해하는 열쇠인 표준편차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버스시간표, 주식 지표, 선거의 출구조사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기업의 성장률, 주시기의 월평균수익률 등의 예를 통해 금융 상품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안목도 길러준다.



땅 폭등 시대 다시 온다

저자 김현기, 김인철, 양기선 | 출판사 부광

『땅 폭등 시대 다시 온다』는 투자가치가 높은 땅의 기초에서부터 잠재력에 이르기까지를 상세히 알려준다. 기초적인 공법과 공시법부터 땅의 예민한 부위까지 꼼꼼히 짚어내고 있다. 저자들은 점차 식어가는 아파트 투자를 자제하라고 말하며, '폭등'의 매력을 갖고 있는 땅 투자의 비법을 낱알히 공개한다. 마지막 5장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담고 있어 독자들에게 땅 투자의 매력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명한다. 더불어 부록으로 '땅 폭등 예상 지역', '부동산 용어', '알아두면 편한 공법·공시법'을 수록하고 있다.



여자공감

저자 안은영 | 출판사 해냄출판사

<여자생활백서>의 작가, 안은영이 흔들리는 젊음에 보내는 소박한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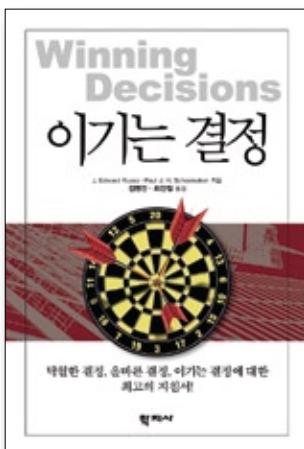
여성들의 사랑과 연애, 직장생활과 인간관계에 대한 상큼발랄한 조언서 <여자생활백서>의 작가, 안은영이 흔들리는 젊음에 보내는 소박한 위로 『여자공감』. 자립과 지존이라는 삶의 커다란 화두를 짊어지고 연애와 결혼의 갈림길에서 좌충우돌하는 이 시대 모든 여성들에게 자신의 경험에서 추출한 작은 깨달음을 조심스레 털어놓는다. 사람에게 치이고 사랑에 상처받은 후 백의 고백을 구구절절 들은 후 “그래, 맞아. 사실 나 역시 그랬단다”라며 맞장구쳐주는 듯한 서른한 통의 편지가 지친 감성에 훌륭한 치료제 역할을 해준다.



시크릿 두 번째 이야기

저자 플 해링턴 | 역자 장정운 | 출판사 살림

수 세기 동안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던 ‘부와 성공의 비밀’을 알려주는 <시크릿>의 상세 사용설명서. 시크릿의 원리를 짚어주면서 시크릿 활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부와 성공, 훌륭한 인간관계, 건강, 자신감 등 일상 속에서 바라는 것들의 사용방법까지 꼼꼼하게 짚어주고 있다. 특히, 지식으로 인식해온 부와 성공의 비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여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다.



이기는 결정

저자 J. EDWARD RUSSO, PAUL J. H. SCHOEMAKER | 역자 김명언, 최인철 | 출판사 학지사

신속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이 미래를 결정한다!

의사결정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기는 방법을 제시하는 로드맵 『이기는 결정』. 의사결정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올바른 결론으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경영전문가이자 의사결정 전문가인 저자들은 의사결정 이론 및 결정 분석에서부터 인공지능 및 문제해결, 집단 역학과 창의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적 분야를 총망라해 의사결정에 대해 소개한다. 좋은 결정, 빠른 결정, 잦은 결정, 그리고 이기는 결정까지 결정의 틀을 짓고, 정보를 수집하고,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기는 결정 지침을 만나보자.

자신을 허물고 부활을 꿈꾸는 이에게-

여행은 혁명이다

소장/정연승

tel.021.521.2212
hp.081.888.5353
email.yunisarah@lycos.co.kr

마타하리여행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기다려 줄라 공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 변호사 이소왕 배상 -

DOOWANG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rn.net.id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021-7278-0704 Fax:021-7278-8330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관	520	895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동 한인회	022	200 6880
발리 한인회	0361	286 248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카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매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탐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버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끌라빠가당)	471	8047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 **종교 단체**

기독교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420	9134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29	0211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8779	8959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룸 황성주 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킵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 꽃집	0816	733 810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당)	9773	478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 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	723	5638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Kris Kim 7279 1555
Hair Perm 7280 1404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봉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지)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지)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플라빠가딩) 2850 7600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고려가든 (024)321 992
고목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기소야 574 7581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다리아 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 치킨(버까지) 8243 4848
레드토마토 EX몰 315 1033
뽕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 552 1210
모나리자 8990 9570
몰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 6583 1472
버까지 서울 8895 7604
산들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 447 414
소양강 897 2231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 분식 722 0276
어울림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 552 4047
울엄마 920 7244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 4587-6030 F: 4587-8171 H: 0812-967-8131
E: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hanmail.net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 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고객 만족을 위해 언제나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퓨릭 컨설팅 Since 2001
BUSINESS INVESTMENT & MANAGEMENT

- ◆ 회계 자문, 회계 감사, 세무 자문
- ◆ 투자, 창업 지원 서비스
- ◆ 각종 인허가 대행 서비스

Tel. (021) 5596 3213 / 5595 4666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사무실 인테리어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사무실은
로만인테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OFFICE INTERIOR 전문업체
로만인테리어
HP. 0811-847-699
Tel: (021) 720-4851 Fax: (021) 726-0910
Jl. Laksana II No. 13, Blok S, Kebayoran Baru

아이니 갤러리
INI gallery



Telp. 021-5814690
021-98202086
0812 19285578
0817 113578

가구 furniture
Neo classic Antique, European style, Baroque,
Modern & Minimalist, Italian style, gold & white.

interior 인테리어
Home, Office, Apartment, Commercial, Villa,
Remodeling, Exhibition.

원조식당	4585 1156
2002 레스토랑	5940 4189
장터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리안 하우스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동)	(022)203 1626
코리안하우스 핏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쁘찌까랑)	8990 6230
하나정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플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플라빠가딩)	9773 4780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스피드뉴스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타임 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	603 9274 1780
솔로몬 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뎀)	0778 462 500

●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4034
------------	---------

● 증권/보험

동서 KOLIBINDO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 증권	797 6210
클레몽 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린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보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 **하숙집**

쉼터 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8370	7245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 앤 리	725	5008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 논술	3342	7540
뽀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 아트스쿨(리보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725	575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 **환전**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85	4779
환전	712	8556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발리 (지역번호 0361)

● **여행사**

PESONA TAMAN KENCANA	744	1525
PD 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288	999
APA TOUR	241	341
TNB	773	5801
KORUS	744	7200
MARIN TOUR	224	010
VIP TOUR	762	090
SUDINA BALI	744	2121
MATAHARI KORIN	757	474
CAKRAWALA TOUR	727	242
B,J,C TOUR	284	365
M TOUR	725	800
SATYA TOUR	283	305
RED CAP	754	4418
스피릿투어	234	825
Varia Tour	860	4977
Korea Travel	756	899
대한항공지점	244	988

● **식당**

A One Seoul Garden	768	323
hanil rest	727	250
Seoul Garden (0362)	292	20
청기와	287	503
꼬끼레스토랑	287	503
Ajengan Korean FOOD	263	793
Grill House Restaurant	752	755
BUGA RESTAURANT	286	909

● **서비스업**

- 마사지		
아이시스마사지	287	503
INKO MASSAGE	789	2000
MASSO MASSAGE	725	475

- **빌라, 호텔**

드림랜드빌라	708	199
라벤더 호텔 앤 스파	752	961
BEVERLY HILLS	789	2000



인도네시아가 보이는
리·얼·타·임·뉴·스

데일리코리아는 유료정보입니다.

구독문의
Tel 021-725-7447
HP 0813-1898-9897
dailykoreaindonesia@gmail.com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Arirang Hotel (0363)	417	95

- 기타 서비스업

INT	720	999
HAN STAR	729	099
BALI ZIGI.COM	745	4229
시나르무띠아라(진주)	462	061
선주열린진주가게	761	539
발리데와파	285	501
CLEAN/GREEN	289	070
환타지가라오케	282	828
뜨게아궁	298	643
공항(플로)	759	368
BALI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익투스	815	310
Bali Cable Com	705	266
B,T,I	284	362
DEDO RAYA UTAMA	720	452
G,B,I 발론기구	704	333
LAPAMA 레프팅	288	507

반둥 (지역번호 022)

명가 레스토랑	200	7363
---------	-----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2월 공지 사항

해외진출 우리기업 대상 신종 전화사기 주의 당부

- 최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뇌물을 요구하는 신종 전화사기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사기조직들은 자국 진출 외국업체들을 표적으로 투자청 등으로부터 업종, 임원성명 등 구체적인 회사 관련자료를 입수한 후
 - 자신을 주지사 비서실장 등으로 소개한 후 주지사가 은밀히 통화하고 싶어한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통화를 시도하면
 - ‘개인적으로 긴급히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도움을 준다면 회사업무에 도움을 주겠다’ 등 갖가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계좌번호를 통보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기업 대상 전화사기는 현지 우리기업 진출 증가에 편승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태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뇌물 성격의 금전을 요구 받을 때는 일단 전화사기로 의심하시고 우리 공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한인문화회관 1층 상담실

Jl. Jend.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상담방법: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M&A, 부동산, 저작권, 자원개발, 채권회수, 파산관재인,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소송, 중재, 재단법인, 출입국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이승민 변호사, 변리사, 파산관재인(한인회 자문변호사)

MP. 0816-1911245 / Tel. 021) 529-60643)

visngmin@centrin.net.id

대사관,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서비스센터를 설치 하였습니다.

○ 자문 내용:

- 인도네시아의 투자관련 법령,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등 기업 영업 관련 법률 문제

2. 상기 센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관 김호일 조사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1)520-1915 / 핸드폰: 0811-183-3164

E-mail: jkt_kimhoil@msn.com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 인도네시아어 강좌 >

강의시간: 매주 화/금요일, 10:00~12:00

강의실: 한인회 2층

지도강사: 안선근 교수

연락처: 521-2515 / 0816-1883-224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을 관람.

탐방리더: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사공경 (0816 190 9976),

신유희 (0818-708-228)

< 월화차회 >

모임 일정: 매주 화/목요일, 10:00

강의실: 한인회 강당 1층

연락처: 720-4211, 0818-491-325

< 한국어 강좌 >

강좌시간: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한인회 2층

연락처: 521-2515 / 0815-1177-1899

불법 취업 외국인 집중 단속

-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장관은 10.27(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취업허가 (IMTA)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으니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사용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허가 취득
 - 취업허가서에 명시된 직무범위내에서 업무 수행
 - 외국인 취업금지 직종(인사, 경리등)에 취업여부 확인
 - 단기체류라도 업무 수행 필요시 단기 취업 비자 취득
- 참고사항 : 처벌규정 (인니 노동법)
 - 취업허가 없이 취업 : 1~4년 징역형 / 1~4억 루피아 벌금형
 - 직책규정 미준수 : 1~12개월 징역형 / 1천~1억 루피아 벌금형

대한항공 12월 성수기 추가운항 안내

항상 저희 대한항공을 애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성수기를 맞아 대한항공에서 다음과 같이 서울행 추가편을 운항합니다. 참고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추가편 운항 기간 :

2009년 11월 24일 ~ 2010년 1월 1일

2. 항공기 운항 시간표 (추가편)

○ 자카르타 - 서울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기종	출발		도착	
KE 626	화	09.11.24	09.12.29	A332	자카르타	22:05	서울	07:00*1
	금, 일	09.11.27	2010.1.1			00:55		09:50
	월	09.12.28	09.12.28			22:05		07:00*1
KE 625	화	09.10.25	10.3.27	772	서울	15:35	자카르타	20:45
	목, 토	09.11.26	09.12.31			18:05		23:15
	월	09.12.28	09.12.28			15:35		20:45

※ 정부인가 조건임

3. 참고사항

○ 기존 정기편은 변경 없이 매일 운항합니다.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기종	출발		도착	
KE628	매일	09.10.25	10.3.27	772	자카르타	21:55	서울	06:50*1
KE627	매일	09.10.25	10.3.27	772	서울	15:20	자카르타	20:30

대한항공은 교민 여러분을 편리한 스케줄과 안전운항으로 매일 고국으로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18년간의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드리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정품 진주 전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매달가능)
- ◆ 최상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 보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갤러리(워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점(수출/무역)

Tel. 021-725-8857
HP. 0816-873-176 / 0816-1390-333

한인뉴스 이메일

haninnews123@gmail.com

홈페이지

www.innekorean.or.id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일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장 등 100여社로 송달되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언제든지 한인뉴스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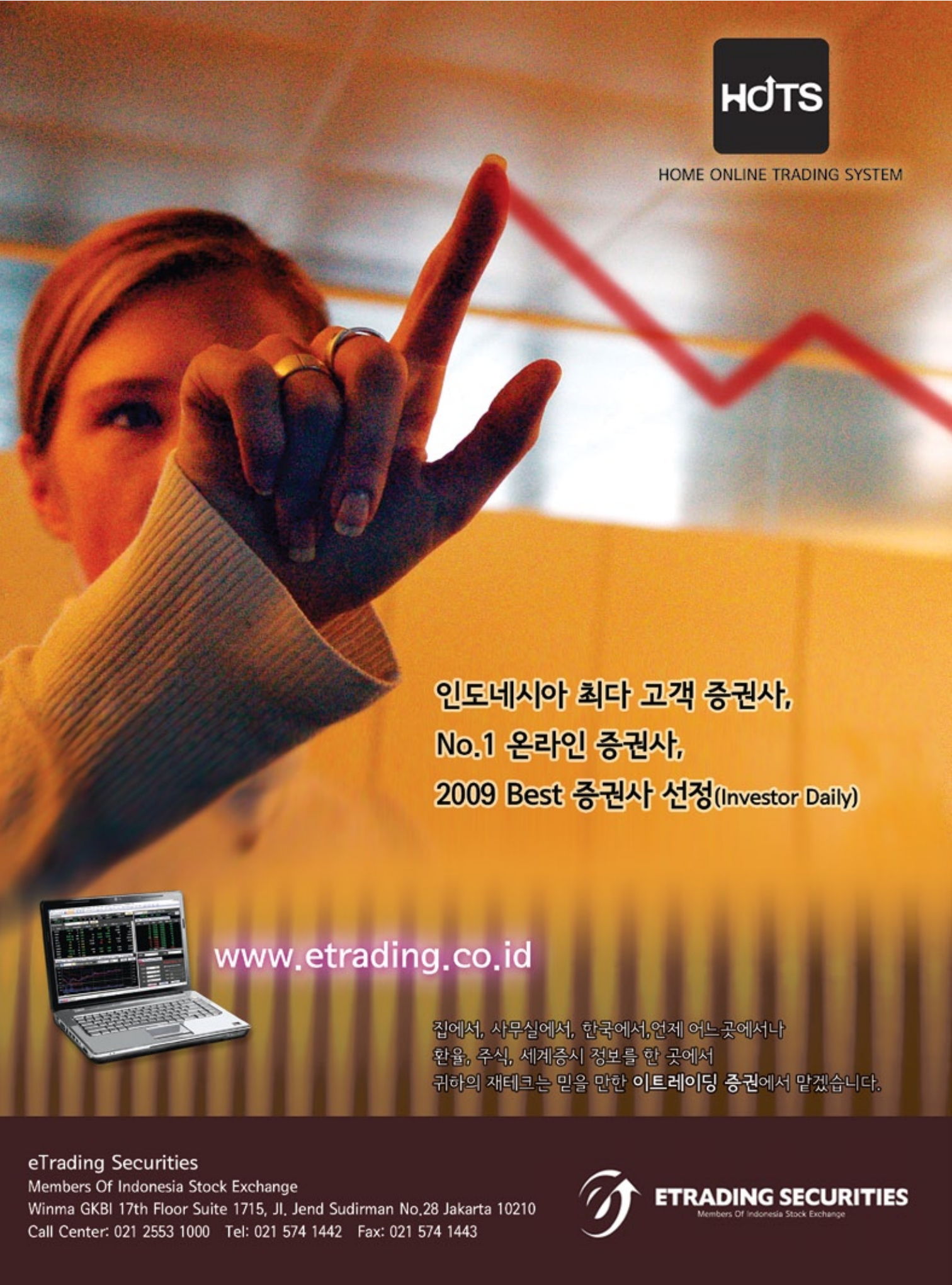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HOTs

HOME ONLINE TRADING SYSTEM



인도네시아 최다 고객 증권사,
No.1 온라인 증권사,
2009 Best 증권사 선정(Investor Daily)



www.etrading.co.id

집에서, 사무실에서, 한국에서, 언제 어느곳에서나
환율, 주식, 세계증시 정보를 한 곳에서
귀하의 재테크는 믿을 만한 이트레이딩 증권에서 맡겠습니다.

eTrading Securities

Members Of Indonesia Stock Exchange

Winma GKBI 17th Floor Suite 1715, Jl. Jend Sudirman No.28 Jakarta 10210

Call Center: 021 2553 1000 Tel: 021 574 1442 Fax: 021 574 1443



ETRADING SECURITIES

Members Of Indonesia Stock Exchange